

석사학위논문

과정중심 논술지도 방법 연구

지도교수 문 성 숙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강 태 일

2001년 8월

과정중심 논술지도 방법 연구

지도교수 문 성 숙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1년 5월 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강태일의 교육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01년 6월 일

<u>심사위원장</u>	인
<u>심사위원</u>	인
<u>심사위원</u>	인

<국문초록>

과정중심 논술지도 방법 연구

강 태 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지도교수 문성숙

1990년대 중반부터 상당수 대학들이 입학시험에서 논술고사를 시행함에 따라 대학 입시 대비를 위하여 논술을 학습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이보다 논술이 필요한 근본적인 이유는 논술이 의사소통 능력, 논리력, 창의력, 비판력, 의사결정 능력 등을 향상시키며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정서를 함양하는 데도 효과적인 학습활동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교육 현장에서 보면 논술은 범교과적 성격 때문에 지도의 주체가 불분명하여 논술지도를 회피하는 경향이 다소 있다. 또 학생수 과다에 따른 개별지도의 어려움과, 현장에 적용가능한 지도방법의 미비 등으로 논술 지도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논술 쓰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면서 현장에서 활용하기 편한 논술 지도 방안을 구안할 필요성이 증대된다. 이 연구는 기존의 전통적 지도 방안인 결과중심 논술지도의 문제점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과정중심 논술지도 방안을 구안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과정중심 논술지도 방안은 논술의 과정을 중시하여 논술 과정마다 '무엇을 어떻게 학습할 것인가'하는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요점이다.

논술을 하나의 문제해결 과정으로 보면 논술 과제 해결 전략을 학습하고 습득된 전략을 새로운 문제상황에 적용함으로써 과제 해결이 가능할 뿐 아니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린다 플라워의 5분법을 원용하여 논술의 과정을 계획하기, 내용 생성하기, 내용 조직하기, 표현하기, 고쳐 쓰기로 나누고 아울러 조정하기 과정을 두어 전 단계의 미비점을 계속 보완 수정해 나가도록 하였다. 각 과정별 문제해결 전략은 다음과 같다. 계획하기 과정에서는 문제분석 및 주제 설정 전략을, 내용 생성 과정에는 브레인스토밍, PMI 기법, 즉석 말하기 전략을, 내용 조직하기 과정은 개요 작성 전략을, 표현하기 과정에서는 부분적 얼른 쓰기 전략과 전체적 초고 쓰기 전략을, 고쳐 쓰기 과정에서는 동료의 조언전략과 지도 교사의 조언하기 전략을 마련하였다. 과정별 전략은 직접 교수법의 원리에 따라 학습할 수 있도록 구안하였다.

* 본 논문은 2001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석사학위 논문임.

과정중심 논술지도 방법은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논술 쓰기 과정을 몇 단계로 나누고 각 과정마다 적절한 전략을 학습하여 부분적, 순차적으로 접근하면 막연히 한꺼번에 논술 쓰기를 행하는 경우보다 논술 쓰기가 보다 쉽게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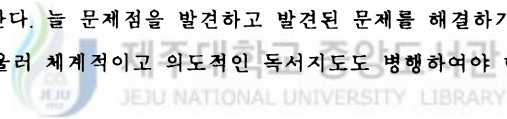
둘째, 논술 쓰기에서 학습자들이 실제적으로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내용 생성이다. 사전에 논술 문제를 제시하고 관련자료를 조사하고 브레인스토밍, PMI기법, 즉석 말하기 등 다양한 기법을 활용함으로써 내용 생성이 보다 쉬워지게 된다.

셋째, 개별학습과 토의학습을 병행함으로써 전적으로 개별적인 논술 학습 때보다 내용이 풍부하고 정교성도 높게 된다.

넷째, 학습자들이 논술 쓰기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자기 주도적 논술 학습 태도의 긍정적 변화가 기대된다.

다섯째, 과정 중심의 접근과 문제 해결 전략의 활용, 모둠원의 협력 등으로 숙련자는 물론 특히 초보자에게도 유용한 논술 학습 방법이 될 것이다.

논술지도는 특정 교과 담당 교사의 몫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모든 교사가 논술 지도 교사라는 인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늘 문제점을 발견하고 발견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상황을 의도적으로 제공하고, 아울러 체계적이고 의도적인 독서지도도 병행하여야 한다.



목 차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선행 연구 검토	5
3. 연구의 범위 및 절차	9
II. 이론적 배경	11
1. 논술의 본질	11
2. 과정중심 쓰기 학습 원리	14
3. 문제 해결 학습	20
III. 과정중심 논술지도 방법	25
1. 과정중심 논술지도 프로그램 구안의 원리	25
2. 논술의 과정	28
3. 과정별 논술 전략	30
4. 과정중심 논술지도 절차	39
IV. 논술지도의 실제	42
1. 계획하기 과정	42
2. 내용 생성하기 과정	47
3. 내용 조직하기 과정	57
4. 표현하기 과정	64
5. 고쳐 쓰기 과정	73
V. 결론 및 제언	85
참고문헌	87
〈Abstract〉	90

표 목 차

〈표 1〉 문제 해결과정으로서의 작문의 절차	22
〈표 2〉 논술의 과정	29
〈표 3〉 논술 과정별 전략	31
〈표 4〉 주제와 주제문	43
〈표 5〉 내용 생성의 절차	49
〈표 6〉 단계식 구성	59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종래의 학교 교육은 지식전달 위주의 주입식 교육이 주류를 이루어 온 것이 사실이다. 주입식 교육은 단기간에 많은 양의 지식을 학습하는 데는 효율적인 방법이지만 학생들에게 창의적 사고력, 논리적 사고력, 비판적 사고력 등 고차적인 사고력을 제대로 길러주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러한 고등정신 능력을 기르는 것이 교육이 추구하는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이고 논술은 고등정신 능력을 신장시키는 데 기여한다는 면에서 획일적인 주입식 교육에 대한 반성적 대안의 하나로 제시되기 시작했다. 또 그런 관점에서 논술은 독일, 프랑스 등에서는 대학입시의 중요한 전형요소로 일찍부터 시행되어 왔다.

현실적인 면에서 대학입시 제도는 고등학교 교육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도 1990년대 중반부터 상당수 대학들이 입학시험에서 논술고사를 시행하게 됨에 따라 논술의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되고 있다. 물론 전국 모든 대학이 논술 시험을 치르는 것은 아니지만 이른바 유명 대학들이 논술시험을 대학 입시에서 주요 전형요소로 채택하면서 이런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상위권 학생들은 자의든 타의든 입시의 관문을 뚫기 위하여 논술을 준비할 현실적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그러나 논술이 필요한 이유를 보다 근본적인 면에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주어진 문제에 대하여 사고를 논리적으로 전개하여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거나 설득하는 텍스트를 생산하는 논술 기능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기능 중의 하나이다. 논술 기능은 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나 학문적

성취를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사회 생활을 올바르게 수행하는 데도 필수적인 기능”¹⁾이다. 교과 학습을 통하여 논술 지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논술 기능²⁾의 중요성을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첫째, 논술은 의사소통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되는 행위이다. 글을 쓰는 사람은 글을 읽는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글을 쓴다. 즉 필자는 독자의 지적 상태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무엇’을 주장하기도 하며, 어떤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명하기도 한다. 의사소통 행위로서의 글쓰기가 갖는 여러 가지 성질들은 실제로 글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보화 사회 또는 고급 기술 문명 사회의 특성을 지니게 될 미래 사회에 대비하여 젊은 세대들이 의사소통 능력으로서의 글쓰기 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않는다면, 미래 사회가 각 개인에게 요구하는 여러 가지 문제 사태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도 힘들 것이다. 자신의 생각을 체계적으로 조직하여 정확한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는 전문직 종사자, 정확하고 간결하게 보고서 하나 제대로 못쓰는 회사원, 자신의 생각을 명료하고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는 정치가, 그리고 일상 생활 속의 여러 가지 의사 소통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겪게 될 고충을 생각해 보면, 의사 표현 행위로서의 논술 기능이 지닌 중요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논술 활동은 교육 상황에서 학생들의 논리적 사고력과 창의적 사고력을 신장·촉진시킨다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을 찾을 수 있다. 논술 활동을 함으로써 학생들은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게 된다. 논술 활동은 학생들로 하여금 사물들 사이의 관계를 바르게 인식하게 하고, 사물들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며,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들에 대하여 질서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논술 활동은 학생들이 사람, 사물, 주요 현상, 주요 문제들에 관하여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혹은 자신이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에 관한 어떤 통찰을 얻게 된다. 글쓰기 능력

1) 교육부(1992),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해설」, 교육부, p.231.

2) 상계서, pp.242~247.

을 습득함으로써 사람들은 보다 논리적으로 생각을 전개하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비판적으로 현상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논술 기능을 제대로 갖춘다는 것은 앞으로 정보화 사회에서 직면하게 될 여러 가지 문제 상황에 대처하여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하는 일과 직결된다.

셋째, 의사소통 행위로서의 논술하기가 지닌 중요성은 논술 행위야말로 바로 의사 결정의 과정이라는 데서 찾을 수 있다. 논술 과정에서 필자는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정확한 의미를 발견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논술의 목적, 예상 독자, 논술의 내용 등에 관해 끊임없이 의사 결정을 해야 한다. 이러한 의사 결정 훈련이 학문을 하거나 사회 생활을 영위하는 데 매우 가치 있는 경험이 된다. 의사 결정과 관련하여 글을 쓰는 사람은 논술 과정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결정해야 하고, 예상 독자가 누구인지, 자신의 글을 읽을 사람이 어떻게 내용을 이해하게 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예상 독자가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내용을 조직하는 방식과 표현 방식도 결정해야 한다. 또한 글쓰기 과정에서 자신이 지금까지 쓴 글의 내용과 조직 방식과 표현 방식을 적절하게 고치는 방법도 결정해야 한다. 이처럼 논술의 모든 과정은 대단히 복잡한 의사 결정 과정이기 때문에 논술 활동을 함으로써 학생들은 의사 결정 능력을 매우 효과적으로 신장시켜 나갈 수 있다.

넷째, 논술 활동은 학생들로 하여금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정서를 가지게 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 현대의 순수인지심리학 분야에서는 인간의 인지 작용에 있어서 정서의 중요성을 해명하려는 연구가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순수인지심리학자들과는 달리 사회심리학자들은 정서의 문제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보여 왔다. 정서의 문제를 주요 변인으로 고려하지 않는 정보 처리 체제는 인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도모할 수 없다는 사실에 동의하고 있다. 사회심리학자들은, 인간의 모든 경험은 어떤 방식으로든 정서를 포함하는 것으로 인식한다. 어떤 현상의 의미는 그 현상에 대하여 우리가 느끼는 정서와, 그 현상을 표현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선택 장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우리 자신의 느낌, 감정, 태도 등의 정서와 관련되는 정보를 계속하여 투사해 낸다. 따라서 언어 표현 행위와

정서는 불가분리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과 관련하여 논술 행위가 필자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연구한 바³⁾에 따르면 부정적인 정서를 가졌던 많은 학생들이 글쓰기 경험을 확충함으로써 긍정적 정서를 가진 학생으로 변화하게 된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매사에 잘 부끄러워하고, 싫증을 잘 내고, 사고의 혼돈을 자주 경험하고, 의기 소침하고, 외로워하고, 자주 창피스러워하는 등 수동적이며 부정적인 정서를 가졌던 학생들이 체계적인 논술 지도 프로그램 훈련을 받은 후에는 매사에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자신이 하는 일에 기뻐할 줄 알고, 행복감과 만족감과 안도감 등을 보다 쉽게 경험하고, 어려운 일에 도전할 줄 알고, 자신감을 가지고, 스스로를 위로할 줄 아는 등 적극적이며 긍정적인 정서를 가진 학생으로 변화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 실증적인 연구에 의해서 뒷받침되고 있는 것이다. 연구 결과로 미루어 논술 활동은 학생들의 정서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기능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논술을 통하여 의사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시키고, 논리력, 비판력, 창의력 등 고차원적인 사고력을 증진시키고, 논술의 각 단계마다 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하여 의사 결정능력을 향상시키며 학생들로 하여금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정서를 가지게 하는 데 크게 기여하므로 논술은 곧 교육의 본질적인 면에서 매우 중요시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교육 현장에서 논술은 범교과적 성격 때문에 논술 지도의 주체가 불분명하여 논술지도를 회피하는 경향이 다소 있다. 40~50명씩 되는 학급을 적어도 4~5개 반씩 담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학생수 과다에 따른 개별지도의 어려움과, 현장에 적용가능한 지도방법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논술 지도는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논술을 지도하는 경우에도 간혹 논술 모의고사를 치르는 정도이거나, 대학입학 수학능력 시험을 치르고 난 후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일부 학생들에 한해서 실시되는 것이 고작이다.

논술 교육은 설령 대학입시 과목으로 채택하지 않더라도 고등정신 기능을 계발하

3) 박영목(1997), “논술지도의 원리와 절차”, 「논술지도의 실제」, 교육주보사, p.41에서 재인용.

기 위한 사고 교육이라는 교육 본질적인 면에서 접근하여 모든 학생에게 실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유용한 논술지도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해야 한다.

지금까지 논술지도에 대한 연구는 이론 중심 연구에 그치거나 논술문의 평가와 관련된 연구나 결과 중심 논술지도 방안에 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근래에 논술지도에 토의 개념을 도입한 연구나, 논술 쓰기 전략에 관한 연구가 산출되고 있다. 이 연구들은 극히 우수한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어서 일반 학생에게 그대로 적용시키기에는 다소 문제점이 있다. 이들 연구들도 실질적인 지도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피상적으로 제시하는 데 그쳤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 연구는 기존의 결과 중심 논술지도 방안의 문제점에 착안하여 논술 쓰기를 하나의 문제 해결 과정으로 인식하는 데서 출발한다. 논술 쓰기의 각 과정별 전략을 이용하여 논술 쓰기에 차근차근 접근함으로써 특수집단이 아닌 평범한 능력을 가진 일반 학습자들이 논술에 대한 부담감을 덜고 실제로 논술 쓰기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교사들에게는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 가능한 논술지도 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선행 연구 검토

고등학교 교육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논술지도 방안을 구안·개발하기 위하여 먼저 논술지도의 실태를 알아보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논술교육의 실태에 대해서 조사한 욱우균과 최윤길의 조사를 인용하였다.

욱우균(1996)은 그가 소속한 학교 120명 학생과 교사 27명을 대상으로 논술 쓰기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⁴⁾ 이 연구에 의하면 학생들은 논술 쓰기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으며(90%) 이는 대학입시에서 논술고사가 정식과목으로 채택되었기 때문일 것으로 분석하였다.

4) 욱우균(1996), “논술문 쓰기 지도방법 연구”, 고려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p.8~11.

최윤길의 조사⁵⁾에서도 논술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는 학생은 81.7%로 나타났다. 필요성을 느끼는 이유로는 대입 전형에 반영되기 때문이 70.8%로 가장 많았으며 학교 내신성적 때문이라고 답한 학생은 17.5%였고 일상 생활에 필요해서라고 답한 학생은 4.2%였다. 고등 사고 능력과 고차원의 의사 소통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라는 응답은 7.5%에 불과했다. 논술의 필요성은 대입 전형과 학교 내신 성적 두 항목을 합치면 88.3%로 당장 대입이라는 현실적 필요성 때문에 논술을 해야한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교육의 본질적인 면에서 논술의 필요성을 바르게 인식하고 있는 학생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대학 입시와 관련해서 논술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학생이 대부분이라는 것은 논술 지도가 논술을 실시하는 대학에 진학하려는 극히 일부 학생들에게만 그들의 요구에 의해서 실시될 개연성이 있어서 논술 지도가 파행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큼을 시사하게 된다.

한편 '논술 쓰기를 좋아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위의 두 조사에서 학생들은 '논술문 쓰기를 싫어한다' 가 각각 93.3%, 80.8%로 나타났다. 이 이유는 쓰는 방법을 몰라서가 32.5%, 내용 생성이 어려워서가 36.7%로 조사되었다. 이는 학생들이 논술 쓰기 지도를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았다.

육우균의 조사에서 논술을 쓰는 과정에서 서론 부분을 못 쓰고 고민할 때 교사로부터 지도 조언을 받은 일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겨우 10.8%에 불과했다.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쓰기 과정에 대한 지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89.2%).

교사들에 대한 조사에서도 논술 쓰기 시간에 과정 지도 없이 쓸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가 88.9%로 절대적이었다. 논술을 쓰고 난 후 지도 형태는 현장에서 날인만 해주거나(48.2%) 잘된 글만 뽑아 읽어준다는 경우가(22.2%) 대부분이고 개별 첨삭 지도를 해준다는 경우도 29.6%로 나타났다. 위의 조사에 의하면 논술 지도 자체가 거의 형식적으로 행해지거나 논술을 쓰고 난 후에 첨삭하는 결과 중심지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논술을 쓰는 과정에 대한 지도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성영은 실제로 학교 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논술지도의 대체적인 현상을 다

5) 최윤길(1999), "토의 중심 논술 지도 방안 연구", 한국 교원대 석사학위 논문, p.116.

음과 같이 지적하였다.⁶⁾

- 1) 먼저 교사는 학생에게 무엇에 대하여 쓸 것인지 제목을 제시해 준다.
- 2) 그런 다음 바로 학생들로 하여금 글을 쓰게 한다.
- 3) 글을 다 쓰고 나면 교사는 학생들에게 자신이 쓴 글을 다시 읽어보고 잘못된 부분을 고쳐 쓰게 한다.
- 4) 마지막으로 교사는 학생들의 글에 등급을 표시해 준다. 좀 더 친절할 경우에는 잘못된 부분을 찾아 빨간펜으로 첨삭지도 점검을 해준다.

이상과 같은 논술 쓰기 지도는 결과중심 쓰기 지도라고 할 수 있다. 한 편의 논술이 산출된 후 평가나 첨삭을 하는 이 지도법은 논술을 쓰는 과정에서 부딪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 그래서 학생들은 논술을 쓰기 어려운 것으로 단정하고 논술의 필요성은 절감하면서도 논술 쓰기를 싫어하는 기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쓰기에 대한 연구는 주로 문예문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중심이고 설명이나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글은 주로 전문가들이 쓰는 글로 인식하여 이 분야의 쓰기 지도에 대한 연구는 극히 미진한 편이다. 특히 논술 지도에 대한 연구는 대학 입시에서 논술 시험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 시작한 1990년대 중반 이후에 관심이 증대되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 산출된 논술 지도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물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원진숙(1994)은 논술 텍스트에 나타난 결속성 저해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의사 소통적 상호작용 원리에 의한 문제 해결 전략 중심의 논술 지도 방안과 절차 모형을 제시하고, 이를 현장에 적용하여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였다.⁷⁾ 그러나 이 연구는 상호 작용적 논술 학습의 초점을 교사와 학습자간 교수-학습 활동에 국한함으로써 학습자와 학습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협력 학습적인 원리를 간과하였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또 연구자가 소속된 대학의 학생들을 대상으

6) 이성영(1995), 「국어 교육의 내용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p.193.

7) 원진숙(1994), “결속성을 중심으로 한 논술지도 방안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로 연구하였으며 그 대학은 상당히 수준 높은 학생들이 다니는 곳이어서 이 연구를 일반계 고등학교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육우균(1996)⁸⁾은 적절한 전략의 활용을 통한 논술 쓰기 지도 방법을 연구하였다. 이 연구는 논술 과정이 단순화되어 있으며 고립적인 쓰기 활동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쓰기 교육이 인접 발달 영역⁹⁾ 내에서 이루어질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김원석(1997)¹⁰⁾은 질문 생성 전략 훈련과 활용이 논술 과제 수행 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실험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 질문 생성 전략은 필자의 연구에서 학습자의 문제 해결력을 높이기 위한 발문기법을 개발하는 데 시사하는 바가 있었다.

엄훈(1996)¹¹⁾은 탐구 학습과 문제 해결 학습을 도입한 전략 중심의 쓰기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이론적 연구를 하였다. 이 연구는 교사-학생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한 전략 중심의 교수·학습 모형과 교수·학습 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최윤길(1999)¹²⁾은 토의 중심의 학습 방법을 논술 쓰기에 연계하여 토의 중심 논술지도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교육 현장에 적용하여 그 실효성을 검증하였다. 그러나 연구자 스스로 밝힌 것처럼 영재 집단인 과학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여서 자기 학습력이 비교적 약하며 이질적 집단인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적용시키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논술 단계가 너무 세분되어 있고 특히 쓰기 단계에서도 함께 쓰기를 하여 여기에서 익힌 논술 전략이 개인에게 전이되어 학습 효과를 가져오는 데 문제점이 있다. 또 논술 쓰기 전략이 지나치게 많아서 과제 집착력이나 자기 학습력이 약한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논술을 위한 전략 학습보다는 전략 자체를 익히는 것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8) 육우균(1996), 상계서.

9) 비고츠키는 성공적인 학습은 “학습자의 독자적인 문제 해결에 의해서 결정지워지는 발달 차원과, 성인 지도자나 자기 자신보다 학습 능력이 우수한 동료와의 협동학습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결정지워지는 잠정적인 발달 차원 사이의 거리”인 인접 발달 영역 내에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최현섭 외, 국어 교육학 개론, 1997:324~325.).

10) 김원석(1997), “질문 생성 전략이 논술과제 수행 능력에 미치는 효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1) 엄훈(1996), “전략 중심의 쓰기 교수·학습 방법 연구”,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2) 최윤길(1999), 전계서.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1995년부터 대학에서 논술 고사가 실시되면서 논술 지도 방법에 대한 몇 편의 논문이 최근에 발표되었다. 이 연구물들은 한 편의 글이 완성된 후에 학생의 글에 나타난 오류를 교정하는 결과 중심 지도 방법에 대한 종래의 연구물들에 비하면 논술단계에 적절한 전략 중심의 교수 학습모형과 지도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으며, 협력학습의 장점을 논술 쓰기에 이용한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최근의 선행 연구들의 성과를 토대로 하여 논술 쓰기 과정을 중시하고 여기에 소집단 토의 학습, 문제 해결 학습의 원리를 연계시켜 과정 중심 논술지도 방안을 구안·개발하고자 한다.

3. 연구의 범위 및 절차

이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교육현장의 논술교육 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관련있는 선행연구의 검토결과를 토대로 연구 문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1) 과정 중심 논술 지도의 방법을 어떻게 구안할 것인가?

2) 과정 중심 논술 지도 프로그램을 실제 논술 지도에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

위와 같은 문제를 연구하기 위한 하위 과제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① 논술의 과정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필자는 한 편의 글을 쓰기 위하여 일정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글쓰기의 세부 절차는 글을 쓰는 사람과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논술의 과정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문제는 논술도 쓰기의 일종이라는 면에서 보면 쓰기의 과정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문제와 직결된다. 어떠한 경우이든 한 편의 글을 쓰기 위해서 필자는 쓸 내용을 마련하고, 마련한 내용을 조직하고, 조직한 내용을 표현해야 한다. 이러한 3단계 안을 기본으로 하여 보다 세분하여 4단계, 5단계, 6단계 등으로 나누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III장 논술의 과정에서 상술하기로 한다.

② 논술의 과정에 따른 전략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논술을 하나의 문제 해결과정으로 보면, 일련의 논술 과정에서 가장 중심을 이루는 부분은 논술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 지식의 문제와 논술과정에 따른 전략을 마련함에 있어서 논술의 본질적 특성과 쓰기의 일반적 성질, 그리고 문제 해결력이 그리 높지 않은 일반 학습자들의 능력을 감안하여 간편하면서도 습득하기 쉽고 적용하기 쉽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과정별 논술 전략을 마련하였다.

③과정별 전략은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일반 학습자들은 주어진 논술과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전략을 통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점을 고려하여 구안된 과정별 전략을 초기 단계에서 교사중심의 설명과 시범에 의하여 단편적 지식의 형태로 제시되고 학습자들은 반복된 연습과 훈련과정을 통하여 이러한 전략들을 점차 질차적 지식화 하여 내재화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자동화 단계에 이르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였다.

④이 지도 방안을 구안하기 위한 원리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과정중심 지도방안을 구안하는데 착안점으로는,

첫째, 학습자들이 논술 과정에서 접하게 될 여러 가지 제약들을 효율적으로 처리해내기 위해서 과정을 세분해서 단계별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과정별 과제를 해결하는 전략이 있어야 한다. 그 전략은 습득이 쉽고 적용하기 간편한 것이어야 한다.

셋째, 상호작용적 학습의 원리에 의하여 교사와 학습자, 학습자와 학습자 사이 활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넷째, 논술의 본질적 특성과 언어 학습의 원리가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에 중점을 두고 연구하였다. 연구 절차는 고등학교에서의 논술지도 실태를 파악하고, 논술에 대한 이 연구와 관련 있는 최근의 선행 연구를 탐색하고 아울러 이론적 배경을 고찰하고자 한다. 그런 바탕 위에서 과정중심 논술 지도 방법을 구안·개발하고 이 방안을 실제 논술 지도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예시를 보였다. 논술과 관련이 깊지만 배경지식의 활성화나, 기본적인 문장지도의 구체적 방안 등의 문제는 이 연구의 과정과 직접 관련이 있는 범위에 한하여 다루기로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논술의 본질

'논술'이라는 용어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상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이 용어는 우리나라 대학 입시에서 전형 요소 중의 하나로 '논술고사'를 명명한 데서 비롯된다. 바람직한 논술 지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논술의 개념과 성격을 먼저 따져 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논술'의 개념이나 성격을 기존의 대학 논술고사와 관련하여 이해하고자 할 때, '대학입시제도연구'¹³⁾(김종서 외, 1985)에서 밝힌 논술 고사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논술 고사는 대학 입학생의 고차적인 사고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특정 교과목의 내용에 구애받지 않는 소재를 대상으로, 논문형 형태로 출제되고, 주관적 방법으로 채점되는 고사를 지칭한다.

그리고 1987년 교육부에서 발표한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¹⁴⁾에서는 논술고사의 목표와 지침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다양한 학문 분야에 적합한 능력 및 창의성과 사고 전개 과정의 타당성 등 고차원적인 사고 능력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일반적인 주제나 통합교과적인 소재를 대상으로 서술식으로 출제한다. 고졸 수준의 이해력에 적합하고 애매모호하거나 너무 단순하지 않으면서 창의적, 논리적, 비판적 사고와 폭넓은 독서를 요구하는 문제 출제를 권장한다. 국어, 영어, 수학 등 특정 교과목 위주의 변형된 논술고사가 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13) 최윤길(1999), 전계서, p.13에서 재인용.

14) 최윤길(1999), 전계서, p.13에서 재인용.

우리 나라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논술고사의 기본 모델은 독일의 아비투어나 프랑스의 바칼로레아에서 본받아 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독일의 대학 논술 시험(abituraufsatz)에서는 논술의 목적과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¹⁵⁾(박순영, 1997).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를 분명하게 파악하고, 자신의 나이와 교육 정도에 준하는 경험의 폭과 사고의 깊이를 갖추고 있는지, 그다지 어렵지 않은 사태의 연관을 스스로 인식하고, 정돈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자신의 생각을 분명한 귀결로 구성하면서, 언어적으로 바르고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1995학년도부터 우리나라에서 논술 고사를 채택하고 있는 대학들은 대부분 출제의 배경과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¹⁶⁾(노명완, 1997).



교육 개혁에 따른 통합 교과적 사고에 중점을 두어 고등학교 교육 과정의 범위와 수준에 맞으며,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유도하고, 평소 다양한 독서 경험을 바탕으로 사물과 대상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가 하는 논리적·창의적·비판적 사고력 등 고차원적이고 종합적인 사고 능력과 논리적인 서술 능력을 측정한다.

이상의 논의들은 논술을 대학 입시 관련 측면에서 서술한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논술은 특정 교과목이 아니고 하나의 시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특정 교과목이 아니라는 것은 현실적인 면에서 논술 지도의 주체에 대한 불명확으로 인하여 논술 활동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다. 특정 교과에서만 다루지 말고 범교과적으로 또는 교과와 교과의 통합에 의한 통합교과적으로 논술을 지도해야 한다는 당위적 귀결에 이르게 된다. 평가 요소는 논리력, 비판력, 창의력 등 고차원적인 사고이며, 아울러 서술 능력을 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런 평가요소는 교육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신장시키고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논술은 논술이 있는 상위

15) 최윤길(1999), 전계서, p.14에서 재인용.

16) 최윤길(1999), 전계서, p.14에서 재인용.

권 대학 입시 준비를 하는 특정 소수의 학생들만이 문제가 아니며 모든 학생들이 학습해야 할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더욱이 고등학교 졸업 정도의 수준으로 잡고 있다는 것은 고등학교 교육을 받은 사람이 반드시 성취해야 할, 필연성을 시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습 수준이 차이가 심한 일반 학습자들에게도 반드시 논술지도가 이루어져야 할 당위성이 있다. 그렇게 하려면 학습 수준이 다소 미약한 학습자들에게도 적용 가능한 논술지도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김대행(1994)¹⁷⁾은 '논술은 문제 지향적, 발산적, 주체적, 능동적 사고를 근간으로 하여 문제의 발견과 해결의 능력을 입증하는 언어 활동이다.'라고 하였으며, 박영목(1994)¹⁸⁾은 '논술은 고도의 의사 소통 수단으로서 비판적으로 현상을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생각을 전개하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의미한다.'라고 하였다.

이상의 논의의 공통점 중의 하나는 논술을 문제해결과정으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즉 논술은 인간사 전역에 걸친 어떤 견해나 현상을 비판적으로 이해하여 거기서 대립과 갈등의 소지가 있는 문제를 발견하고 발견한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주장을 적절한 근거를 내세워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의사소통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논술을 문제 해결 과정으로 보는 견해는 이 연구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었다.

설명적 텍스트가 어떤 사실을 분명히 알도록 상대방을 이해시키는 것에 목적을 둔다면, 논술 텍스트는 텍스트 생산자의 견해에 대하여 의혹을 갖거나 반대 의견을 가진 이들을 설득시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설명적 텍스트가 일반적으로 사람들 사이에 공유된 지식인 사실을 대상으로 삼는 것에 비하여 논술 텍스트는 아직 명백하지 않은 사실이나 원칙이어서 텍스트 수용자가 받아들일기를 꺼리거나 미루는 내용을 대상으로 한다. 이때 텍스트 생산자는 사실을 근거로 수용자의 이성애 호소하여 납득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이런 논술 텍스트는 작문 능력 발전 단계상 가장 고도의

17) 김대행(1997), "논술지도 교육의 발전적 방향", 「논술지도의 실제」, 교육주보사, p.21.

18) 박영목(1997), 상계서, p.39.

능력을 필요로 한다. 환언하면 논술은 문제를 발견해 내는 통찰력과 문제를 분석해 내는 비판력,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생성에 있어서의 유창성, 다양한 독자의 상황을 적절히 고려할 수 있는 사회적 인지능력, 고도의 논리적 추론능력 등 고차원적이고 통합적인 사고능력을 필요로 하는 글쓰기이다. 따라서 논술 지도방법을 구안하기 위해서는 논술도 글쓰기의 일종이므로 일반적인 작문지도의 원리에 입각하되 논술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지도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겠다.

2. 과정중심 쓰기 학습 원리

쓰기를 어떻게 보느냐하는 것은 쓰기 교육의 방향을 좌우하는 중요한 관건이다. 논술도 쓰기의 일종이므로 쓰기의 관점에 대한 고찰은 논술교육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의의가 있다. 근래에 작문의 과정을 중시하는 과정중심 쓰기 이론이 전통적 쓰기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비추어 논술에서도 논술의 과정을 중시하는 과정 중심 논술지도 방안의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과정 중심 쓰기 이론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문학 연구에서 신비평이 주류를 이루던 시기에 쓰기 분야에서도 형식주의적 관점의 영향을 받았다. 규범문법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어 쓰기 지도에서는 좋은 텍스트의 모방에 초점을 두고 학생들은 좋은 텍스트에서 발견되는 오류를 피하게 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다. 학생들에게 텍스트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적절히 사용하여 주제가 뚜렷하고 다른 의미로 재해석될 여지가 없는 문장, 표준 어법으로 구성된 명확한 글을 쓰도록 지도했다. 군더더기가 없고 문법적으로 오류가 없는 완벽한 문장을 만들어 내는 것이 목적이었다.

형식주의 관점은 텍스트를 구성하는 요소는 객관성을 지니고 있다고 가정하여 텍스트를 구성하는 요소와 이들간의 관계를 규명하면 텍스트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형식주의자들은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하였다¹⁹⁾.

19) 이재승(1997), 「국어 교육의 원리와 방법」, 도서출판 박이정, p.292.

첫째, 언어는 객관적인 요소들로 구성된 고정된 체제를 지니고 있다.

둘째, 텍스트의 의미는 텍스트 자체의 해독을 통해 얻어질 수 있다.

셋째, 글은 말보다 명시적이다.

넷째, 독자는 작자나 그 텍스트가 쓰여진 상황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았을 때만이 그 텍스트를 정확히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형식주의적 관점에 의해서 완성된 글에 나타난 문법적 오류를 수정하는 것을 주안점으로 쓰기 지도를 하는 것이 대체적인 현실이다. 논술 쓰기를 할 때 '교사는 먼저 무엇에 대하여 쓸 것인지 제목을 제시하면 학생들은 바로 어렵게 글을 써서 제출하고 교사는 학생들의 글을 등급화 하거나 첨삭을 한다.' 이것이 전통적으로 지금까지 행해 온 쓰기 교육의 대체적인 모습이다.

이것은 글을 생산하는 과정은 철저히 학습자 스스로 하고 교사는 결과물에 대한 평가나 첨삭을 하는 것으로 결과 중심 쓰기 학습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규범 문법의 준수와 모범적 텍스트의 모방, 그리고 어법상의 정확성을 강조하는 형식주의 쓰기 이론가들은 이것을 교과적인 쓰기 교육 방법으로 보았다. 그 이유는 텍스트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객관성을 중시하였으며, 텍스트의 의미 구성에 관한 모든 중요한 문제는 텍스트 구성 요소를 분석하고 구성 요소 사이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이들은 쓰기 교육의 내용은 수사학으로부터 기본 개념과 원리를 선정하고 조직해야 하며 이와 같이 선정된 기본 개념과 원리를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터득된 원리를 바탕으로 계속적이고 체계적인 모방과 연습을 통하여 텍스트 구성 능력이 신장된다고 보았다.

결과중심 지도 방법은 학생들이 쓴 글 자체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글을 구성하는 객관적인 요소들을 강조한다. 따라서 글쓰기의 규칙을 준수하는 일에 주로 관심을 두게 된다. 이 방법은 글을 쓰는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하는 기회가 거의 없다. 따라서 완성된 글 자체만을 강조하는 전통적인 쓰기 지도에서는 글을 쓰는 과정이나 방법보다 어법이나, 문체, 완성된 글에 나타난 결함에 관한 지도가 중심을 이룬다. 결과물에만 집착하다보니 논술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지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은 소홀하게 되고 따라서 학생들의 논술 능력을 기르는

데 크게 공헌하지 못하고 있으며 내용생성보다 형식 맞추기에 급급한 글을 양산해 낼 우려가 있다.

이러한 종래의 관점에 대한 반성적 대안으로 표현 결과인 텍스트보다는 텍스트를 생산하는 과정에 지도의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 과정중심 쓰기 지도 이론의 요점이다. 다 써놓은 글의 분석에 초점을 두고 학생들의 글을 평가하는데 주로 노력했던 전통적인 쓰기 지도 방법에서 탈피하여 작가의 쓰기 과정을 관찰하고 그들이 사용하는 전략 연구에 중점을 두는 과정중심 쓰기 지도 방법으로 일대 변환을 시도하였다. 인지심리학자들은 쓰기에 필요한 재료는 언어 문제가 아니라 주로 경험에서 우러나는 것이라고 하면서, 쓰기 교육에 진정 도움이 되는 것은 삶의 경험을 표현하게 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들은 쓰기 학습을 언어 자체의 학습으로 보기보다는 하나의 인지적 문제로 보고 쓰기 능력의 발달은 인지적 능력의 발달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았다.²⁰⁾

쓰기의 과정에 초점을 두고 모형화해 놓은 대표적인 것²¹⁾으로 로만과 웰렉(Rohman & Wlecke)의 단계적 쓰기 모형과, 플라워와 헤이즈(Flower & Hayes)의 문제 해결 중심의 쓰기 모형과, 보그랑데(Beaugrande)의 평행적 쓰기 모형이 그것이다.

로만과 웰렉은 쓰기는 쓰기 전, 쓰기, 쓰기 후 단계로 엄격히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이 특히 '쓰기 전' 단계를 인정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흔히 쓰기 전 활동으로 배경 지식을 활성화하거나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활동 등을 드는데, 이들 이전에서는 대체로 이러한 활동에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이다.

플라워와 헤이즈 등의 연구에 의해서 쓰기는 역동적 의미 구성의 과정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이들은 전문 작가의 쓰기 과정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두 가지 특징이 있다는 사실²²⁾을 발견하였다.

첫째, 계획하기, 쓰기, 교정하기 등 쓰기의 각 단계는 일련의 고정된 순서 속에서

20) 이재승(1998), 상계서, p.293.

21) 이재승(1997), 상계서, p.375.

22) 욱우균(1996), 전계서, pp.24~27.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회귀적(recursive)이라는 것이다. 전통적인 쓰기 교육에서는 교사가 제시하는 모형이나 쓰기 계획에 따라 내용을 수정하거나, 시제를 바꾸어 다시 쓰는 등 표준어법에 따라 단어를 결합하여 정확하고 유연한 문장을 만들도록 하는데 교육의 초점을 두었다(박영목, 1994). 따라서 교사 중심의 통제식 수업이 되기 때문에 학습자의 생각이 잘 반영되지 못 하였다.

둘째, 쓰기는 위계적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목표 지향적이고, 문제 해결적이라는 것이다. 쓰기를 문제 해결 과정으로 보는 대표적인 모형이 플라워와 헤이즈의 '인지적 쓰기 모형' 또는 '문제 해결 모형'이다(노명완·박영목·권경안, 1988 ; 손영애·이성영·이삼형, 1992). 인지적 쓰기 모형에서는 쓰기 과정을 외부인의 관점이 아닌 필자 내부에서 바라보는 관점을 취한다는 면에서 과정 중심의 접근법을 취한다. 이 모형에서 쓰기는 로만과 웰렉의 모형에 기술되어 있는 세 가지 유형의 쓰기 과정을 포함하면서, '조정하기'라는 개념을 추가하여 쓰기의 회귀성을 주장한다.

조정하기는 인지심리학의 연구 결과를 수용한 것이다. 즉 작가의 장기 기억과 과제 환경은 조정하기를 통해서 회귀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쓰기의 과정이 계획하기, 작성하기, 고쳐 쓰기의 순차적(linear)인 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쓰기 과정에서는 그 단계를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지적 쓰기 모형은 쓰기 과정을 해결해 가는 필자의 내적 인지 과정 및 이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내적(장기기억)·외적(작문환경) 요인들에 대하여 총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해 주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보그랑데의 모형은 쓰기 과정의 '회귀성'이라는 면에 있어서 이보다 한 발 더 나아가 있다. 보그랑데는 평행적 쓰기 모형은 쓰기의 과정에 작용하는 일련의 요소들은 기본적으로 동시에 작용한다고 본 것이다. 엄격히 말해, 보그랑데의 관점에서는 단계적 쓰기 모형이나 인지적 쓰기 모형에서 가정하고 있는 '단계'가 설정될 수 없다고 보았다²³⁾.

이들 관점 중에서 쓰기 과정에서 작용하는 여러 요소들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은 보그랑데의 모형이다. 본질적으로 실제의 쓰기 과정에서는 어느 한 문제를 해

23) 이재승(1997), 전계서, p.376.

결하고 다음에 또 다른 문제를 해결하는 식으로 순서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요소들이 동시에 작용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식의 관점이 쓰기 과정의 ‘본질’을 보다 정확히 설명할 수는 있지만 쓰기 교육을 하는 사람에게는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쓰기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는 기본적으로 평행적 모형에서 가정하는 쓰기 과정에 입각해야겠지만, 정작 이러한 요소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쓰기에 관련된 모든 요소들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어야 한다는 면에서 보면 그 해답을 찾기 어렵다.”²⁴⁾ 더욱이 학습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일반학습자들에게는 막연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을 생각해 볼 때, 쓰기 교육에 대한 관심에서 쓰기 과정을 설명한다면 쓰기 과정은 순차적이면서 한편으로 동시적, 또는 회귀적인 특성을 지닌 것으로 보는 것이 유용하다. 즉, 어느 정도 순서대로 진행된다고 보되 이들 순서가 엄격한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회귀적인 속성을 지니는 것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과정중심의 쓰기 지도를 위해서는 순차적인 면과 회귀적 속성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래서 각 과정별로 이들 요소를 반영하는 활동이 포함되어야 하고, 더 정확히 말하면 이들 과정별로 나누어진 활동을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활동들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적 필요에 의해, 쓰기 과정을 크게 몇 부분으로 구분해서 각 과정별로 필요한 활동을 통해 이른바 과정중심의 쓰기 지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각 과정에 필요한 활동과 이들 활동을 전체적으로 조절하는 활동을 동시에 고려해야만, 쓰기 과정의 본질적 특성(회귀성)을 반영하면서 소기의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의 쓰기 능력을 길러 주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역동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단순히 과제를 제시하고 생산된 글을 평가해 주는 데 만족해서는 안 된다. 학생들의 글쓰기 과정에 참여하여 각각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줄 때, 학생들의 쓰기 능력의 증진을 기대할 수 있다. 대부분의 학습자들은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쓸 수 있는지에 대해 기본적인 지식과 방법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지 못하다.

24) 이재승(1997), 전계서, p.377.

과제가 주어졌을 때, 많은 학생들은 막막해 하게 된다. 어떤 내용을 넣어야 할지, 서론, 본론, 결론은 어떻게 나누면 좋을지, 문장이나 문단은 어떻게 쓰는 것이 좋을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단순히 분량을 채우기 위해 마지못해 쓰게 되는 경우가 많다.

한 편의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내용을 적절히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 이를 적절히 선정, 조직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또한 이를 문자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며 교정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다. 이들 쓰기 과정별로 필요한 능력은 과정 중심의 접근을 통해 길러 줄 여지가 많다.

과정 중심의 쓰기 이론은 개별적인 쓰기 행위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으며, “텍스트의 개념을 ‘필자의 계획, 목적, 사고를 언어로 바꾸어 놓은 것’으로 규정한다. 이 이론에서는 필자를 수사론적 문제 해결자로, 독자를 능동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해석자로 본다. 또한 텍스트를 통한 의미 구성 능력은 개인의 목적 의식과 사고 능력의 계발을 통하여 신장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²⁵⁾

이러한 과정 중심이 쓰기 교육의 연구 성과들을 통하여 학생들은 작문 과정에서 필요한 기능과 전략들을 학습함으로써 쓰기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점들을 한꺼번에 해결해야 하는 전통적인 쓰기 교육의 난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결과중심 쓰기 이론을 통한 논술문 쓰기 지도는 모범적인 글의 반복 연습을 통해 좋은 논술문을 만들어 내는 데 중점을 두기 때문에, 실제 쓰기 과정에 대한 전략적 지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과정 중심의 쓰기 이론을 통한 논술문 쓰기 지도는 쓰기의 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전략을 지도해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좋은 논술문을 만들어 내는 데 도움을 주게 된다. 따라서 논술문 쓰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과정 중심의 쓰기 전략을 지도할 필요가 있다.

25) 이재승(1997), 전계서, pp.302~303.

3. 문제해결 학습

문제란 기본적으로 보면 출구가 보이지 아니하는 딜레마이며,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답답한 장면이며, 현재로서는 대답을 할 수 없는 어떤 질문이요, 과제이다. 문제는 내용이나 형태에 따라 다양하다.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나 방법도 매우 다양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문제 해결의 전략을 다음과 같은 다섯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는데 각 단계의 머리글자를 따서 IDEAL로 명명하고 있다.²⁶⁾

1단계 : 문제의 확인(identifying problems)

문제가 있음을 알고 문제를 발견하고 찾아내는 단계를 말한다. 문제 의식이 강할수록 문제해결에 적극성을 띠게 된다. 무심코 넘기는 일상사나 자기 주변의 관행화된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왜 그럴까', '좀 더 나은 방안은 없는가' 하는 등의 문제제기의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2단계 : 문제의 정의(defining problem)

제기된 문제를 어떻게 정의하고 표상하느냐 하는 단계이다. 표상은 머리 속에서 할 수도 있는데 이를 내적 표상이라 하고, 종이 같은 데 쓰는 것을 외적 표상이라고 한다. 가급적 표상을 시각적으로 나타내 보거나 개념도를 만들어 보는 방법 등이 효과적으로 쓰인다. 문제에 대한 표상을 달리하면 해결 방안도 그에 따라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문제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는 것은 해결 방안 모색에 직결되는 중요한 것이다.

3단계 : 대안 탐색(explaining alternative approach)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탐색하는 단계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수집하고 그 전략의 적절성과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전략인지 등을 심도 있게 분석해야 한다. 대안 탐색의 방법으로, 시행착오에 의한 방법, 브레인스토밍법, 수단-목적 분

26) 김영채(1998), 「사고력 이론 개발과 수업」, 교육과학사, p.244.

석법 등이 있다.

4단계 : 계획의 실행(acting on a plan)

생성해 낸 대안들을 실제로 현실에 적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대안을 실행하기 위해서 전략을 적용하고 피드백하면서 계획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해결기법을 모색하기도 한다.

5단계 : 효과의 확인(looking at the effects)

대안을 실행하고 나면 거기에서 얻게되는 효과를 확인하고 분석해야 한다. 효과의 분석에는 목표의 달성도뿐만 아니라 해결의 정확성이나 효율성 등도 포함해서 분석해야 한다. 확인 결과가 불만족스러울 때에는 첫 단계부터 다시 점검해 본다든지 단계의 조합 과정에서 잘못 되었는지 등을 분석하고 그에 따라 제2, 제3의 대안을 세우고 실행하며 그 효과를 검증해야 한다.

논술에 있어서도 위의 과정과 유사한 과정을 밟는다고 할 수 있다. 즉 문제의 확인은 논제의 발견에, 문제의 정의는 논제의 설정에, 대안 탐색은 내용의 생성에 해당될 것이며, 계획의 실행은 표현하기에, 효과의 확인은 고쳐 쓰기 과정에 대비시킬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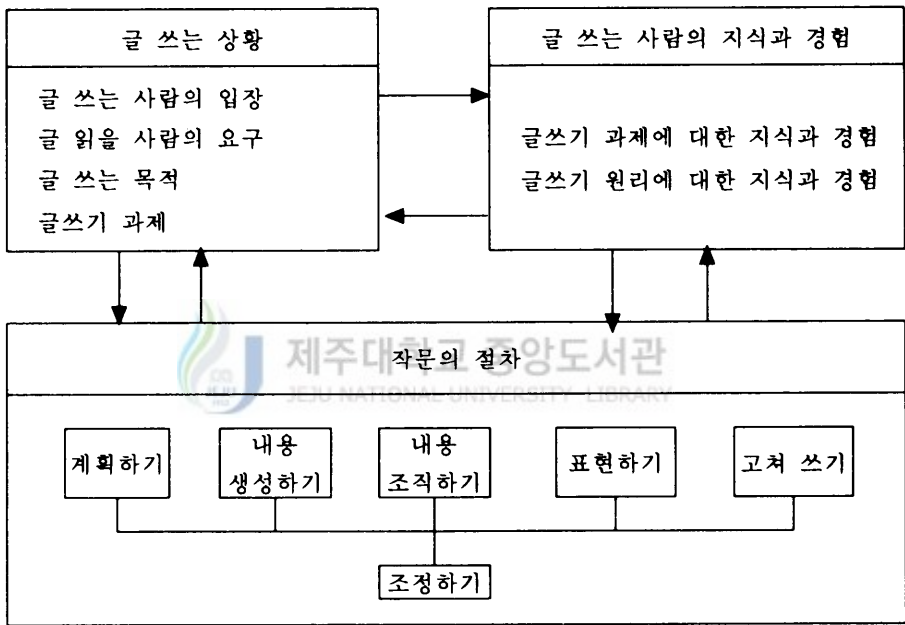
플라워와 헤이즈는 쓰기를 문제 해결의 과정으로 보고, 글을 쓰는 동안에 작가가 자신의 장기 기억 속에 들어있는 정보를 쓰기의 상황에 맞게 조절, 통제하는 '과정'에 관심을 가졌다. 이들은 주로 작가가 글을 쓰는 동안에 머리 속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사고 과정을 모두 구술하게(think-aloud)한 후, 구술된 것(protocols)을 분석하여 쓰기의 과정을 추론해 내었다. 이를 토대로 플라워와 헤이즈는 쓰기 과정의 인지적 모형을 개발하였다. 이들은 쓰기의 과정을 작가가 구성 행위 동안에 내용을 결집(cohesion) 또는 조직하는 일련의 사고 과정으로 보고 있다.

작문의 절차와 관련되는 문제 해결 과정은 다음 그림에 제시된 것처럼 계획하기, 내용 생성하기, 내용 조직하기, 표현하기, 고쳐 쓰기 등 다섯 단계로 세분할 수 있다.

쓰기를 보는 관점과 글의 내용에 따라 쓰기 과정을 몇 단계로 나누느냐 하는 문

제는 달라질 수 있다. 각 단계에서 필자는 적절한 문제 해결전략을 사용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글쓰기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좋은 글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다음은 문제 해결과정으로서의 작문의 절차를 표27) 로 나타낸 것이다



<표 1> 문제 해결과정으로서의 작문의 절차

이 모형은 이른바 쓰기의 단계를 엄격히 나누려고 하는 '단계적 쓰기 모형'과 공통점이 많지만, 한편으로는 여러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 무엇보다 이 모형은 쓰기란 객관적인 지식을 그대로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작가가 자신의 장기 기억에 있는 지식을 상황(과제, 독자 등)에 맞게 새롭게 구성해 나가는 역동적인 과정이라는 관점을 취하고 있다

이 모형은 쓰기 과정 자체를 목표 지향적인 사고 과정으로 파악한다. 작문 행위

27) 교육부, (1992), 전계서, p.259.

를 통해서 작자는 목표의 계층적 그물망을 생산해 내고 이것은 다시 쓰기 과정의 지침 역할을 하면서 쓰기의 전체 과정에 논리와 연결성을 부여한다. 뿐만 아니라 이 모형은 쓰기 행위를 새로운 목표의 발견을 유도하는 지속적인 창조 과정으로 본다. 쓰기 행위를 통해서 작자는 새로운 통찰력과 지식을 얻게 되고, 이에 기초해 작자는 그 자신의 목표를 재생산, 재창조하게 된다²⁸⁾.(원진숙, 1995)

이렇게 볼 때, 쓰기 행위는 매우 복잡한 사고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 모형은 쓰기의 본질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²⁹⁾. 첫째, 쓰기의 하위 과정들은 작가가 실제로 글을 쓰는 과정에서 거의 동시에 상호작용적으로 기능한다는 점이다. 둘째, 쓰기의 전체 과정은 목적 지향적이며, 하나의 문제 해결 과정과 같다는 점이다. 셋째, 쓰기 행위는 새로운 목표의 발견을 유도한다는 점이다. 작자는 단순히 일련의 하위 목표로서 상위 목표를 발견할 수 있게 해 준다(이인제, 1992). 이렇듯 이 모형은 글을 쓰는 과정에서 영향을 끼치는 변인과 쓰기의 특성, 즉 작자의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복잡한 사고 과정을 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글쓰기의 절차를 일종의 문제 해결 과정으로 생각하게 되면 다른 학문 분야에서 문제 해결력을 효과적으로 신장시키고 있는 것처럼 작문 분야에서도 체계적인 연습을 통하여 문제 해결 능력으로서의 작문 능력을 효과적으로 신장시킬 수 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하고 주어진 문제에 대한 엄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작문의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결정되면 필자는 일련의 문제 해결 과정을 체계적으로 밟아 나가야 한다³⁰⁾.

문제 해결의 사고 전략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부적인 단계들을 거쳐야 한다.

첫째, 가르치려는 문제 해결 기능을 결정한다. 둘째, 가르치려는 문제 해결 기능은 교과 내용에 통합시켜 연습한다. 교과 내용을 이용하기 전에 보다 일상 생활적

28) 이재승(1997), 전계서, p317에서 재인용.

29) 이재승(1997), 전계서, p317에서 재인용.

30) 교육부(1992), 전계서, p.258.

인 내용을 가지고 연습하면 효과적이다. 교과 수업에 처음 도입할 때는 내용과 절차를 자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그러나 후속 수업에서는 가르치려는 기능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시켜주는 것으로 충분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들 기능들을 일반적인 문제 해결 장면에 적용하는 연습을 한다. 이런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논술능력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Ⅲ. 과정중심 논술지도 방법

1. 과정중심 논술지도 프로그램 구안의 원리

과정중심 논술지도 프로그램은 과정중심 쓰기 이론과 문제해결 학습, 토의 학습, 통합적 언어 학습의 이론을 원용하여 순차적 접근의 원리, 전략활용의 원리, 토의 학습·개별학습 병행의 원리, 통합적 언어 학습의 원리에 의하여 구안되었다.

첫째, 논술 과정별로 차례로 접근하는 순차적 접근의 원리로 만들어졌다. 결과중심 논술 쓰기에서 논제만 제시하고 다 쓰기를 기다린 후에 조언이나 첨삭을 가하는 지도 방식으로는 학생들의 논술 학습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어려우며 논술 능력 향상은 기대하기가 어렵다. 학습자들은 각 과정별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의 완성된 논술문이 될지 막연하게만 느껴져서 주어진 시간 내내 고심만 하다가 시간이 끝나게 되거나 산출된 아이디어들을 체계적으로 조직하지 못하고 앞뒤의 일관성도 없는 글이 되고 마는 경우가 흔하다.

어떤 일을 할 때도 일 자체의 성격에 따라 일의 접근 순서가 있다. 그 순서대로 일을 하면 순서대로 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훨씬 능률적이다. 글쓰기도 마찬가지다. 글쓰기의 각 과정마다 순차적으로 처리할 때 각 과정별 과제가 명백해지고, 그것이 명백해지면 과제가 보다 쉽게 해결된다. 막연한 과제를 해결할 때보다 명백한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과제 해결에 보다 효과적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예를 들어 맨 먼저 논제를 분석한다. 분석된 논제에 따라서 주제를 결정한다. 주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들을 생성해 낸다. 생성해 낸 내용을 조직하고 개요를 작성한다. 조직된 개요에 따라 글을 쓴다. 쓴 글을 다시 다듬는다는 등 각 과정별 과제가 명백해지기 때문에 학생들은 어떠한 순서에 따라 무엇을 해야할지 명확히 알게 된다. 그 결과 각 과제 해결에 대한 집착력이 강해지고, 강한 집착력은 결국

과제 수행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관건이 된다.

이 프로그램은 논술 쓰기를 하나의 문제-해결의 사고 과정으로 파악한다. 논술할 내용을 생성하고, 조직하고 이 내용을 다시 논리적 언어로 설득력 있게 표현하고 또 자신의 쓰고 있는 글 또는 이미 쓴 글을 평가하고 고쳐 쓰는 과정을 순차적이면서도 역동적으로 행하다보면 하나의 논술이 완성되는 원리를 중점으로 삼았다.

둘째는 과정별 전략을 통해서 논술 쓰기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구안되었다. 순차적 접근의 원리가 논술을 작성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어떠한 순서에 의해서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라면 전략 활용의 원리는 각 과정별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이다. 즉 각 과정별로 어떠한 방법으로 과제를 해결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그 방법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각 과정별 과제 해결 전략을 학습하고 습득된 전략을 다른 문제 상황에 적용함으로써 새로운 과제를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논술 쓰기도 일종의 문제 해결 과정으로 본다면 논술의 각 과정마다 적절하고 효율적인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아무런 전략도 없이 무턱대고 접근하는 것보다 훨씬 과제 해결이 수월해지고 정확성을 기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바로 논술 쓰기를 하나의 문제 해결 과정으로 보고 각 과정에 따라 과제 해결 전략을 구안하여 제시했다. 학습자들은 일련의 논술 과정에서 접하게 되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데 필요한 과정적 절차로서의 전략에 관한 지식과 기능을 체계적으로 익히고 이를 스스로 운용함으로써 고도의 사고력인 문제 해결 능력을 신장시켜 나갈 수 있게 된다.

셋째, 토의학습과 개별학습을 병행하여 다양한 학습 형태가 조화를 이루도록 구안되었다.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사이 상호 작용적 관계를 중시하는 이 프로그램은 각 과정마다 다양하고 적절한 학습을 하도록 설계되었다. 교사는 전체 수업 체계와 내용을 설계하여 학습자들에게 제시할 뿐만 아니라 실제 작문 절차에 따라 필요한 전략을 설명하고 시범을 보임으로써 학습자로 하여금 스스로 전략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학습자의 능동적 참여를 강조하는 학습자 중심의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면서도 학습 전체의 과정을 통하여 개별 학습의 결과를 심화 발전시키며 정교화 전략을 구사하여 한 편의 완성된 논술을 작성할 수 있게 된다.

넷째는 통합적 언어 학습의 원리를 이용하였다. 통합이란 부분들을 연결하여 전체를 만드는 일 혹은 이질적인 것들을 하나의 체제 속으로 연결 융화시키는 일이다. 통합 학습은 이와 같이 이질적인 교과 부분들을 연결하여 하나의 체제 속에서 새롭게 구성하는 학습이다. 통합의 유형은 주제 중심 수업처럼 여러 교과의 배경지식을 동원하는 교과 통합, 단일 교과내의 내용 통합, 기능간의 통합 등 다양하다.

통합적 언어 교수법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간의 통합에 의한 언어 사용 능력의 신장을 도모할 수 있다. 실제 언어 생활은 통합적이고 기능간에 공유하는 부분이 많아서 서로 보완적이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논술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배경지식의 빈곤이다. 배경지식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읽기와 소집단 토의 과정에서의 말하기, 듣기 등 제반 언어 기능과의 상호 관련성을 맺으면서 학습되어야 한다.

읽기 기능은 학습자가 지닌 스키마를 토대로 의미를 재구성하는 사고 과정을 거친다는 점에서 쓰기 기능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필자가 지니는 텍스트 구조에 대한 인식이나 추론 능력 등은 독해의 경험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기능을 연결시켜 가르치는 것이 효과적이다.³¹⁾

대체로 인지심리학이 발달되면서 읽기와 쓰기 모두에서 '과정'을 중요시하게 되었다. 읽기는 독자와 작자가 만나는 과정이며, 쓰기는 작자와 독자가 만나는 과정으로 파악하게 되었다. 읽기에서 의미는 전적으로 작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독자가 자신의 배경 경험을 구성하여 의미를 재창조, 재구성하는 과정으로 파악하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쓰기는 독자를 고려하여 의미를 생성해 나가는 과정으로 파악하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쓰기는 독자를 고려하여 의미를 생성해 나가는 과정으로 파악하게

31) 쓰기 능력을 신장시키려는 수단으로 읽기 기능을 함께 연계해 통합적으로 지도하는 방안을 모색한 논외로는 Stosky(1993), Carrell(1985), Crowhurst(1991), 박주영(1992)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Crowhurst(1991)에서는 논술 텍스트에 대한 독서가 실제 논술 텍스트를 생산해 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실험을 통해 확인한 바 있다.

되었다.

이러한 결론은 결국 읽기를 잘 하면 쓰기를 잘 하고, 쓰기를 잘 하면 읽기를 잘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읽기와 쓰기를 통합적으로 지도하고자 할 때 의미 있는 상황에서 실제적 활동을 통해 언어교육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읽기와 쓰기의 통합적 지도방법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들 수 있으나 이 글에서는 주제 학습, 토론학습, 쓰기 워크샵 등의 활동이 되겠다. 주제 학습은 어떤 주제를 정하여 깊이 있게 탐구하는 과정을 통해 읽기와 쓰기 능력을 동시에 기르는 것을 말한다.

이 연구에서는 계획하기 단계에서 1주일 전 정도에 사전에 논제를 제시하고 관련 논제에 대해서 각종 자료를 탐색하는 읽기 활동을 통해 주제에 대한 이해와 사고를 깊이 있게 할 수 있다.

그 다음 내용 생성하기 과정이나 내용 조직하기 과정에서 읽기 활동을 통해 이해한 주제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소집단 토론학습을 통해서 글의 내용을 생성하고 생성된 내용을 바탕으로 내용을 조직하는 과정에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활동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2. 논술의 과정

쓰기 학습에서 '과정', '단계', '절차' 등 용어는 학자에 따라 제각기 달리 쓰이고 있다. 글을 계획하는 데서부터 완성하기까지 일련의 행위를 몇 개로 나누고 그 나누어 놓은 것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쓰는 '단계'나 '절차'는 선후 행위간에 단절적 성격이 비교적 강한데 비해, 과정은 단절적 성격이면서 동시에 연속성이 내포된 개념이다. 이 글에서는 특히 '과정'은 '결과'에 대한 상대적 개념의 성격을 내포하면서 한편의 글을 이루어 나가는 중간 중간의 행위 자체들까지도 포함된다는 의미로 쓰고 있다. 한편의 글을 쓰기 위하여 필자는 일정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글쓰기의 세부 절차는 글을 쓰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글을 쓰는 목적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

쓰기의 과정은 3분법, 4분법, 5분법, 6분법 등이 있다.

3분법은 허프와 클림(Huff & Klime)³²⁾의 제시한 쓰기 전 단계(pre-drafting), 쓰기 단계(drafting), 고쳐 쓰기 단계(revision)를 비롯하여, 한국교육개발원(1992)에서 개발한 아이디어 생산과정, 텍스트의 생산 과정, 고쳐 쓰기 과정 등이 대표적이다. 4분법은 아이디어 생성과정, 아이디어 조직, 아이디어 표현, 아이디어 교정으로 나누기도 하고, 전술한 한국교육개발원의 3단계에 조절하기 단계를 추가한 모형이 대표적이다.

5분법은 플라워³³⁾와 헤이즈에 의하여 개발된 것으로 계획하기, 내용 생성하기, 내용 조직하기, 표현하기, 고쳐 쓰기로 나누는 것이 대표적이다.

6분법³⁴⁾은 최윤길에 의해 제시된 것으로 계획하기, 생각 꺼내기, 생각 묶기, 초고 쓰기, 고쳐 쓰기, 평가하기의 6개 과정으로 나누었다.

상술한 논술 과정을 알기 쉽게 표로 대비시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과		정					
3분법	Huff&Klime	쓰기 전			쓰기	고쳐 쓰기	
	노명완	아이디어 생산			텍스트 생산	고쳐 쓰기	
4분법	원진숙	아이디어 생성	아이디어 조직	텍스트 생산	고쳐 쓰기		
5분법	Flower	계획 하기	내용 생성하기	내용 조직하기	표현하기	고쳐 쓰기	
6분법	최윤길	계획 하기	생각 꺼내기	생각 묶기	초고 쓰기	고쳐 쓰기	평가 하기

〈표 2〉 논술의 과정

32) 엄훈(1996), “전략 중심의 쓰기 교수 학습방법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p.57에서 재인용.

33) 교육부(1992), 전계서, p.259.

34) 최윤길(1999), 전계서, p.38.

이 과정들은 각기 나름대로 특징이 있으나 대체로 3분법을 근간으로 하여 3분법에서 쓰기와 고쳐 쓰기 단계는 고정적으로 설정하고 쓰기 전 단계를 보다 세분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즉 이들 관점간에는 미묘한 차이는 있을지라도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된다. 단지 한두 단계를 세분하거나 다른 식으로 표현했을 뿐이다.

이 글에서는 논술 과정을 문제 해결 과정으로 인식하는 플라위의 5분법을 모델로 원용하였다. 쓰기 전 단계를 단순화하면 학습자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내용생성이나 내용 조직 과정이 단조로워서 실제 학습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과정 중심 쓰기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가 '조정하기' 과정을 설정하여 글을 쓰는 과정에서 전 단계의 미비점을 계속해서 보완 수정해 나가도록 하였다.



3. 과정별 논술 전략

문제해결 중심의 쓰기 과정 모델의 관점에서 본다면 논술 과정은 학습자가 지닌 지식을 바탕으로 주어진 문제상황으로서의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학습자들은 이러한 논술 과정에서 접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데 필요한 '과정적 절차로서의 문제 해결 전략'에 대한 지식과 기능을 학습하고 훈련함으로써 문제 해결 능력으로써의 논술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게 된다.

문제 상황으로 제시된 논술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어진 과제를 이해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문제가 자신에게 일단 이해하기 쉽고 문제해결에 적절한 상태로 표상이 되면 그 다음에는 주어진 논술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전략을 탐색하는 작업이 이어져야 한다. 최선의 전략이 선택되면 그 전략을 실행하고, 최종적으로 그 전략의 효과 및 결과에 대하여 평가를 내리는 점검하기 단계가

이어진다.

원래 '전략'³⁵⁾이라 하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일반적인 계획을 의미한다. 문제 해결 과정에서 요구되는 전략적 지식이란 문제 해결자가 목표에 이르기 위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이를 관리하는가에 대한 지식을 말한다. 전략은 학습자로 하여금 적합한 정보와 기능을 선택하고 문제해결을 시도하는 데 있어서 그것들을 언제 그리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도록 해 주는 역할을 한다.

학습자들이 논술을 어렵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논술 과정 중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제약들을 한꺼번에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이다. 즉 아무런 전략도 없이 무작정 처음부터 끝까지 논술 한편을 완성하라고 하니 도대체 무엇을 어떤 순서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학습자는 논술이 부담스럽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부담을 덜고 효율적으로 논술을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논술의 과정을 계획하기, 내용 생성하기, 내용 조직하기, 표현하기, 고쳐 쓰기로 나누고 각 과정에 필요한 전략들을 아래와 같이 구안하였다. 여기에다 조정하기 과정을 별도로 설정하여 중간 중간에 전 단계의 미비점을 점검하여 보완하도록 하였다.

과 정	전 략	학습형태	비 고
계획하기	문제분석 및 주제설정	개별학습	읽기
내용 생성하기	브레인스토밍 PMI, 즉석 말하기	개별학습 토의학습	읽기, 쓰기, 말하기 통합
내용 조직하기	개요 짜기	개별학습 토의학습	말하기, 쓰기
표현하기	얼른 쓰기 초고 쓰기	개별학습	쓰기
고쳐 쓰기	동료 조언 지도교사 조언	토의학습	읽기, 말하기, 쓰기
+조정 하기	각과정별 전 단계 내용 점 검 조정하기	개별학습 토의학습	읽기, 말하기, 듣 기, 쓰기

〈표 3〉 논술 과정별 전략

35) 원진숙(1994), 전계서, p.170에서 재인용.

1) 계획하기 과정의 전략

계획하기 과정에 쓰이는 전략은 논제 분석 및 주제 설정이다. 주어진 논제를 분석하여 쟁점을 파악하고 가능한 여러 가지 논의 방향을 생각하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방향을 모색하고 주제를 설정하고 설정된 주제에 따라 관련자료를 탐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문제를 분석하여 쟁점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파악하는 일은 글의 방향을 잃지 않고 출제자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는 구실을 한다. 작문의 상황을 구성하는 수사론적 문제는 필자, 예상 독자, 글의 주제, 글의 목적 등을 포괄하는 매우 광범위하고도 추상적인 영역이다. 필자로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영역을 탐색함으로써 필자가 해결해야 할 문제의 성격을 정확하게 규정짓는 일이다. 글을 생산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먼저 수사론적 문제를 탐색해야 하는 까닭은 수사론적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³⁶⁾이 바로 글을 생산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기저가 되기 때문이다.

수사론적 문제를 탐색하고 분석하는 단계에서 필요한 일은 글을 쓰는 목적과 예상 독자의 요구와 자신의 입장을 가급적 구체적으로 탐색하고 분석하여 글의 주제를 적절하게 설정하는 것이다. 글을 쓰는 목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필자는 다음과 같은 물음을 제기해 볼 필요가 있다.³⁷⁾ 이 글을 씀으로써 성취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 어떠한 효과를 기대하는가? 예상 독자가 무엇을 느끼고 생각하기를 바라는가? 이상과 같은 물음에 스스로 답해 봄으로써 필자는 자신이 쓰는 글의 목적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설정한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이런 일련의 문제들을 탐색하고 나서 주제를 설정해야 한다.

논술 시험의 경우는 당해 시간에 논술 문제가 주어지고 논술 시간도 엄격히 제한되지만 논술 쓰기 학습은 논술 문제를 사전에 시간적 여유를 두어 제시하는 것이 학습자가 논술 문제를 분석하고 관련 자료를 탐색함으로써 논술에서 가장 어렵게 생각되는 내용 생성에 많은 도움이 된다. 논술 문제는 쟁점이 분명하고 학습자의

36) 린다플라워(1993), 원진숙·황정연 역, 「글쓰기의 문제 해결 전략」, pp.151~152 참조.

37) 교육주보사(1999), 「논술 지도의 실제」, 상지사, p.54.

학습 수준에 적합하여 학습자의 관심을 불러 일으킬만한 문제를 제시하는 것이 학습 동기 유발에 효과적이다. 또 논술 문제는 처음에는 명시적인 문제로부터 시작하여 차차 학습자의 문제 분석력과 논술력이 향상되는 정도에 따라 수준이 높은 문제 혹은 암시적 성격의 문제를 제시해야 한다.

문제에 제시문이 있을 경우 제시문을 읽고 그 내용과 관련지어 문제가 요구하는 바 논제를 파악하되 다양한 입장에서 생각하여 자신의 입장을 정한다. 이 때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할만한 충분한 근거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예상되는 반론에 대한 대안 내지 반박논리를 갖출 수 있는지도 고려되어야 한다. 아울러 글의 목적, 예상 독자 등의 상황도 고려하여 자신의 입장을 정한다. 결정한 입장을 문제가 요구하는 상황에 맞게 구체적으로 문장화한 것이 주제이다. 주제란 필자가 글을 통해 나타내고자 하는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생각이다. 주제를 설정할 때는 먼저 추상적이고 넓은 범위에서부터 생각을 보다 좁혀서 글쓰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구체적이며 핵심적인 참주제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주제를 보다 명확하게 완결된 문장으로 전술한 것이 주제문이다. 주제문을 통하여 필자의 주장이나 의견이 명백하게 제시된다. 실제 논술에서 쟁점을 파악하고 그 쟁점에 대한 필자의 주장을 문장으로 작성한 주제문은 논지의 핵심이며 글의 방향을 잃지 않도록 해 준다. 그리고 글의 내용과 깊이를 예측하게 한다. 그러므로 주제문은 주장의 핵심을 구체적이며 한정적으로 명백하게 하나의 완결된 문장으로 표현해야 한다.

2) 내용 생성 전략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서는 창의적 사고 활동이 필수적이다. 창의적 사고 활동을 함으로써 필자는 주어진 문제에 대하여 자신의 기억 속에 저장하고 있는 생각의 판형을 깨뜨릴 수 있으며, 평소에는 좀처럼 떠오르지 않는 참신한 생각이나 기발한 착상을 포착할 수 있다. 또한, 창조적 사고 활동을 함으로써 필자는 추론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아이디어들 사이의 연관성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다.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서 창의적이고 체계적인 사고를 전개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계획하기 단계에서 설정한 여러 가지 주요 문제 또는 중심 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체계적으로 탐색해 내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조직의 원리, 문제 분석의 원리, 유추의 원리 등을 적용할 수 있다. 주어진 문제에 대하여 조직의 원리를 적용하여 세부 내용을 생성할 경우에는 정의를 내리거나 비교하거나 원인 혹은 결과를 따져보거나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는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문제 분석의 원리를 적용하여 세부 내용을 생성할 경우에는 주어진 문제 자체의 특성, 시간이 흐름에 따른 변화, 주변 상황과의 관계 등을 분석할 수 있다. 유추의 원리를 적용하여 세부 내용을 생성할 경우에는 개인적 유추, 직접적 유추, 상징적 유추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내용 생성하기는 논술 쓰기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고 실제로 학습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과정이다. 학습자들은 배경지식이 부족해서 내용 생성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고 전략의 부재나 미숙으로 내재된 지식을 꺼내지도 못하거나 극히 제한적인 내용만 생성해내는 경우가 많다. 내용 생성 전략으로는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 피엠아이(PMI)기법, 즉석 말하기 등의 기법을 활용하면 효과적이다. 브레인스토밍은 알렉스 오스본에 의해서 개발된 집단적 사고의 전형적인 기법이지만 개인적 문제 해결에도 사용할 수 있다. 브레인스토밍은 브레인과 스토밍의 합성어로 두뇌에서 폭풍이 일 듯이 많은 사고가 일어나도록 사고를 촉진하는 전략이다. 이 방법의 기본전제는 사고의 양이 질을 결정한다는 것이며 다음과 같은 규칙을 지켜야 효과적이다.³⁸⁾

- ① 아이디어에 대한 평가는 나중에 보류한다. 그래서 비판하지 않는다.
- ② 아이디어가 거칠고 자유 분방한 것일수록 더 좋다.
- ③ 아이디어수가 많을수록 더 좋다. 질에는 관계없이 가능한 대로 많은 아이디어들을 생성해내도록 격려한다.
- ④ 남들이 제안한 아이디어들을 두 개 또는 그 이상 여러 개 조합시켜 새로운 것을 만들 수도 있다.

브레인스토밍이 잘 안될 경우 질문 방법을 사용해 브레인스토밍을 하도록 유도하

38) 김영채(1998), 전개서, p.317.

면 효과적이다. 생각이 보다 쉽게 떠오르거나, 많은 생각이 떠오르도록 하기 위해서 주제에 대한 하위 항목들을 설정하거나 주제에 접근하는 여러 단계들을 설정하고 나서 그에 따른 질문들을 만들어 생각을 유도하는 방법이다. 특히 초보자에게 알맞은 방법이지만 자칫 사고에 제한을 가져올 우려도 있다.

다음은 PMI기법을 이용하여 브레인스토밍 결과를 평가하고 생성된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PMI기법³⁹⁾이란 플러스(plus)의 머리글자로 제시된 아이디어의 좋은 점, 마이너스(minus)의 머리글자로 제시된 아이디어의 나쁜점, 인터리스팅(interesting)의 머리글자로 제시된 아이디어에 대하여 흥미롭다고 생각하는 점 등을 가려내도록 하여 내용을 보다 정교화 하는 기법이다.

브레인스토밍 과정에서 산출된 아이디어가 모두 논술 내용에 유용한 것은 아니다. 서로 상충된 내용이나 더 보완해야 할 내용 등을 조정하기 위해서 모둠원끼리 이 기법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같은 주제에 대하여 같은 입장에서 논술한 모둠끼리 내용을 비교 평가하면서 내용을 보다 정교하고 풍부하게 하는데 적합한 사고기법이다. 수준별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비교적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사고 전략이다.

그 밖의 내용생성 전략으로는 수집된 자료들을 통하여 글의 내용을 선정하기 위한 '즉석 말하기'가 있다. 즉석 말하기는 학생들이 적어 놓은 생각의 덩어들을 바탕으로 예상 독자를 앞에 두고 자연스럽게 직접 말하는 것이다. 즉석 말하기를 함으로써 학생들은 자신을 보다 실제적이고 생생한 상황에 위치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글쓰기의 여러 가지 제약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또한 즉석 말하기를 통하여 학생들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산해 내며, 문제 대응력도 커지게 된다. 예를 들어 '여성 할당제가 남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인가'에 대한 즉석 말하기를 한다면 여성 취업 준비자의 입장, 남성 취업 준비자의 입장, 회사 경영자의 입장, 여성운동 대표의 입장 등으로 나누어 각자의 입장에서 말하기를 할 수 있다. 각각의 입장에서 즉석 말하기를 하다보면 주제가 보다 분명해지고 주장에 대한 뒷받침 논거가 적절한지 다른 논거는 없는지 등도 떠오를 수 있고,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할 논거를 찾게 된다. 또한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성해 낼 수도 있다.

39) 김영채(1998), 전계서, p.322.

3) 내용 조직 전략

내용 조직하기 단계는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서 만들어 낸 중심 내용과 세부 내용을 글의 조직 원리에 맞추어 배열하는 단계이다. 내용 조직 전략을 흔히 개요 작성 전략이라고 한다. 글의 개요를 작성한다는 것은 글 전체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치밀한 계획을 세우는 일이다. 글의 제재를 선정하고 주제를 설정한 다음에 필자는 글의 중심 내용과 세부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필자는 글의 구성 원리에 맞추어 글의 내용을 구성하도록 해야 한다. 글의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를 결정한 결과를 일목 요연하게 표로 나타낸 것이 바로 글의 개요이다. 글의 개요를 작성함으로써 필자는 글쓰기의 다음 과정에서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조직하고 배열하거나 문자 언어로 표현하는 일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 나갈 수 있다. 글의 개요는 바로 글쓰기의 지침이 되기 때문이다.

글의 개요를 작성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것은 화제개요와 문장 개요이다. 화제개요는 핵심어구로 표현하여 항목화한 개요인데 작성이 간결하고 쉬우며 일목요연하게 개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문장개요는 각 항목의 요지를 주제문 중심으로 구성한 개요인데 정확한 글의 방향과 내용을 분명히 알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개요를 작성하면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다.

- ① 글의 전체적인 흐름, 논지 전개 과정을 정리할 수 있다.
- ② 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논점에서 벗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 ③ 중복 진술을 피하고, 필요한 내용을 빠뜨리지 않게 한다.
- ④ 앞뒤 순서를 지켜 논리적이고 질서 있는 글이 되도록 한다.
- ⑤ 글의 전체와 부분, 부분 상호간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

4) 표현하기 과정의 전략

표현하기는 사실상 처음으로 텍스트를 생산하는 단계이다. 표현하기 과정에 대한 전략으로는 부분적 얼른 쓰기와 전체적 초고 쓰기 전략이 있다.

얼른 쓰기(speedwriting)⁴⁰⁾는 작문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글을 빨리 쓰도록 구안된 전략이다. 대부분의 학습자들은 초고를 쓸 때 완벽한 글을 쓰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글이란 처음 씌어진 형태로 고정되어 독자에게 전달되어지는 경우를 상상하기란 어렵다. 더욱이 논술문은 본질적으로 독자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글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완벽한 글을 염두에 둔 글쓰기가 이루어질 수는 없다. 다양한 독자를 염두에 둔 사회적 의미 구성으로서의 논술문은 대입 전형 도구라는 특수성과는 관계없이 다듬고, 다시 쓰기를 거듭하는 반복적인 텍스트 생산의 속성을 내포한 전형적인 유형의 텍스트이다.

그런데도 학습자들은 문법적으로 완전하게 표현하고, 글의 내용도 완벽하게 구상하여, 조직한 다음에 써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완벽한 표현을 의식하여 이미 생성해 놓은 아이디어를 자연스럽게 문장화하지 못하고, 개개의 완벽한 문장 구성에 너무 집착하여 사고의 흐름을 놓칠 뿐만 아니라 다음 문장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선수 과정인 내용 생성하기와 내용 조직하기가 완벽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없으려니와, 굳이 완벽주의에 사로잡혀 초고 쓰기 단계에서 스스로 글쓰기에 대한 어려움에 봉착할 필요는 없다. 얼른 쓰기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전략의 하나로 구안되었다. 아이디어는 글을 쓰는 과정에서 더 많이 떠오르고, 문법적 또는 수사법상 어설피거나 불완전한 것은 나중에 고치면 되는 것이다. 얼른 쓰기는 사고를 창의적으로 촉진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이다.(노명완, 1997)

얼른 쓰기는 부분적으로 얼른 떠오르는 생각을 놓치지 않고 쓰는 것으로 화제 개요를 작성했을 경우 문장개요를 작성할 때 사용할 수도 있고 한 단락 내에서 소주제문과 뒷받침 문장과의 통일성을 고려한 표현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이다.

다음은 전체적인 초고 쓰기 전략이다. 이미 작성된 개요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한편의 글을 쓰는 전략이다. 초고 쓰기에서는 기본적으로 효과적인 표현을 위한 어휘 사용, 문장의 구조나 문체, 글의 구성 방법이나 내용 전개 방식 등에 대한 지도도

40) 얼른 쓰기는 Freewriting(Macroie,1976), Loopwriting(Elbow,1981), Flashwriting (Cowen,1983), Quickwriting(Lane & Perin, 1984), Speedwriting(Clce-Muria, 1974) 등으로 표현되며, 내용도 조금씩 다르다. 얼른 쓰기는 쓰기 능력 향상 전략의 하나로 Elbow가 반복해서 쓰기(Loopwritig)로 소개한 바 있다. 얼른 쓰기는 문자 그대로 필자 중심의 자유 반응적인 빨리 쓰기로서 내용을 강조하고, 형식에는 구애받지 않는 전략으로 시간을 제한해서 지도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선수 과정에서 이루어진 아이디어의 생성이나 조직하기를 어떻게 텍스트 생산으로 연결지어 활용하느냐에 초점이 모아져야 한다 표현하기 단계에서 필자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예상되는 독자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필자 중심으로 된 내용을 독자 중심의 내용으로 전환하는 일이다. 표현하기 단계에서 필자가 지켜야 할 원리는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표현할 것, 독자의 흥미를 끌 수 있게 표현할 것, 독자에게 설득력을 지닐 수 있도록 표현할 것, 독자가 기억을 보다 잘 할 수 있게 표현할 것 등 네 가지이다.⁴¹⁾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가능한 한 글을 쉽게 만드는 일은 작문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정확한 어휘를 선택하고 간결한 문장을 사용하는 것은 모두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방법들이다. 독자의 관심을 계속 끌어 나가기 위해 표현 과정에서 필요한 장치를 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일이다. 독자가 어떤 이유로든 글읽기를 중도에서 그만두는 경우에 대비하여 가장 중요한 정보를 구성 단위의 처음에 위치시킨다든지, 유머를 사용한다든지, 독자의 정서에 호소하여 관심을 유발하는 것 등은 모두 독자의 관심을 계속해서 끌어나가기 위한 방법이다.

5) 고쳐 쓰기 과정의 전략

초고를 쓰고 난 다음에 초고를 검토하여 보다 훌륭한 글로 만드는 과정이 고쳐 쓰기이다. 고쳐 쓰기 전략으로는 동료의 조언에 의한 고쳐 쓰기와 지도교사의 첨삭 지도에 의한 고쳐 쓰기를 설정하였다. 동료들은 미숙한 면도 있지만 일련의 논술과정에서 같은 논제에 대하여 같은 입장을 취하는 동료끼리 내용 생성하기와 내용 조직하기를 같이 토의했기 때문에 기대 이상으로 잘 알고 있고, 또 자신의 글과 비교하여 평가하고 상호보완적으로 조언할 수 있으므로 효과적이다, 이 때 조언의 부담을 덜기 위하여 모둠원끼리 고쳐 쓰기 부문별 역할을 분담하여 조언하기를 할 수도 있다.

41) 교육주보사(1997), 전계서, p.58에서 재인용.

지도 교사의 조언은 다인수 학급에서 개별적 첨삭지도의 어려움이 있지만 학습자의 논술력 향상을 위해서 불가피한 일이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에서는 동료의 조언 전략이라는 전 과정을 거친 후에 하게 되므로 부담이 다소 경감될 수 있다.

고쳐 쓰기 단계에서 조언이나 첨삭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까지 작성한 글이 계획하기 단계에서 설정한 목적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일이다. 이러한 확인 과정을 거치면서 필자는 상투어 또는 무의미어의 삭제, 접속어 및 지시어의 조정, 피동문의 적절성 확인 등 문장 수준에서의 고쳐 쓰기를 해야 한다. 그리고 단락 구조의 적절성 확인, 아이디어의 배열 순서 조정, 중심 문장 또는 보충 문장의 첨가, 연결어의 첨가 등 단락 수준에서의 고쳐 쓰기를 해야 한다. 끝으로 잉여적인 부분들의 삭제, 제목 및 소제목의 조정이나 첨가, 글 전체의 동일성 및 연결성 확인 등 글 전체 수준에서의 고쳐 쓰기를 해야 한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고쳐 쓰기 작용은 모두 글의 목적 중심으로 고쳐 써야 한다는 전제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필자는 동료의 조언과 지도교사의 첨삭을 바탕으로 아이디어의 재고와 조정·첨삭 등을 하면서 다시 쓰기의 과정을 거침으로써 보다 좋은 논술을 할 수 있게 된다.

4. 과정중심 논술지도 절차

논술 쓰기를 이처럼 문제 해결 과정으로 보면 각 과정별로 쓰기 전략을 통해 차례로 문제를 해결해 가기 때문에 학생들은 쓰기 과정에서 부딪치게 되는 여러 가지 제약들을 한꺼번에 해결해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과정별 지도에서는, 우선 논술 쓰기 과정을 계획하기 단계, 내용생성하기 단계, 내용조직하기 단계, 표현하기 단계, 고쳐 쓰기 단계로 나눈다. 그런 다음 각 단계에서 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이러한 제약들을 일정한 절차에 따라 해결할 수 있는 쓰기 전략을 세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쓰기 전략은 각 과정별로 교사 중심이 설명과 시범에 의하여 단언적 지식의 형태로 제시되고, 학습자들은 반복된 연습과 훈련 과정을 통하여 점차 절차적 지식으로 내재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자동화 단계에 이르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학습자들은 주어진 논술 쓰기 과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전략을 통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특히 논술 쓰기 지도 초기 단계에서는 각 단계별로 요구되는 쓰기 전략의 사용에 대한 교사의 지도가 필수적이다. 그러면서 점차 교사 중심의 비중도가 낮아지고 학습자 중심의 비중도가 높아지는 문제 해결 전략 중심의 논술 쓰기 지도를 통하여 학습자들은 스스로 논술 과정을 조절하고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시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한 모형이 바로 단계적 논술 지도 모형이다(원진숙, 1994).

이 연구에서는 원진숙의 단계적 모형을 원용하고, 직접 교수법의 절차에 따라 학습하도록 하였다. “직접 교수법은 전체를 부분으로 나눈 후, 이 부분들을 완벽하게 익힘으로써 전체를 익히게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으므로”⁴²⁾ 과정별로 나누어 학습하는 이 프로그램의 원리에 부합된다. 또 “직접 교수법은 구체적으로 학습 방법을 안내해주므로 특히 학습 능력이 다소 부족한 학생들에게 더 효과적인 것”⁴³⁾이어서 상위층만이 아니라 일반 학습자들에게도 적용하기에 적합한 방법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직접 교수법의 절차에 대해서는 논자마다 근소한 차이가 있으나 이 글에서는 6차 교육과정에서의 교사용 지도서에서 소개한 4 단계를 적용했다. 설명하기 단계, 시범 보이기 단계, 질문하기 단계, 활동하기 단계가 그것이다.

단계별 주요 활동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설명하기 단계는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지식 전략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준다. 시범 보이기 단계에서는 주어진 학습과제를 성취하는데 필요한 사고의 과정을 구체적인 예를 보여 주거나 모델을 제시한다. 질문하기 단계에서는 설명한 내용 및 시범 보인 내용을 이해시키기 위하여 주어진 학습과제를 성취하는데 필요한 지식 전략 과정 등에 관하여 세부 단계별로 명시적인 질문을 하여 이해 정도를 확인한다. 다인수 하급임을 감안하여 학습지를 이용하여 질문하기 과정을 대신할 수 있다. 이 때 교사는 그래도 잘 이해되지 않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더 세분된 질문을 함으로써 이해를 확실하게 한다. 활동하기 단계에서는 주어진 목표

42) 이재승(1997), 전계서, p.173.

43) 이재승(1997), 전계서, p.174.

를 달성하기 위하여 이미 학습한 지식 및 전략을 사용하여 일정한 절차에 따라 직접 적용을 해 보게 한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내용 생성하기 과정이나, 내용 조직하기 과정, 고쳐 쓰기 과정에서 소집단 토의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 때 교사가 유의해야 할 점은 학습자의 상호 작용적인 토의 활동이 개방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유롭게 진행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일이다. 그러나 토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 때에는 토의 활동이 화되도록 교사가 질문하기 방법이나 학습지를 이용하여 유도한다.



IV. 논술 지도의 실제

전술한 직접 교수법의 학습 과정안인 설명하기, 시범 보이기, 질문하기, 활동하기의 절차에 준해서 이 장은 서술하였다. 여기에서 직접 교수법의 과정안에 준했다고 함은 각 과정별 절차에 해당되는 내용을 모두 기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부 생략되거나 꼭 체제에 들어맞지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이다. 각 과정별로 '지도 방법'에서는 과정별 설명하기 절차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주로 전략 소개와 적용 방법 등을 제시했다. '지도의 실제'에서는 지도 방법에서 설명한 전략에 대한 시범 보이기와 소개되었고 질문하기 내용은 주로 학습지의 내용으로 대치하였다 실제로 공통 질문인 경우 여러 모둠에 동시에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활동하기는 원래 문제 형태로 제시해야 되겠지만 활동의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이 프로그램을 접하는 학습자나 지도교사에게 실질적인 참고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1. 계획하기 과정

1) 지도 방법

논술문제가 제시되면 우선 문제를 여러 번 숙독하여 무엇에 대한 문제인가를 파악한다. 그 다음 단계로 '무엇의 무엇'에 대한 문제인가를 파악한다. 그리고 나서 '무엇의 무엇'에 대하여 어떤 쟁점이 있는냐를 분석한다. 처음 '무엇'이 가주제라고 하면 '무엇의 무엇'은 참주제라고 할 수 있다. '무엇이 무엇에 대한 쟁점'이 바로 논제이다. 그 쟁점을 조건 단서 등에 유의하면서 파악해야 한다. 대부분이 논술 문제들은 조건이나 단서에 의해서 응답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분량까지도 제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논제 파악이 매우 중요하다. 요구하는 논제에서 벗어나면 올바른 주제를 설정할 수가 없고 주제에서 벗어는 글은 결코 좋은 글이 못된다. 파악된 논

제에 대하여 가능한 여러 입장을 모색하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입장을 선택하여 자신의 주장을 명문화한다.

주제문을 작성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면서 작성한다.⁴⁴⁾

- ① 주제문은 하나의 완전한 문장으로 진술되어야 한다.
- ② 주제문은 의문문의 형태를 취해서는 안 된다. 왜냐 하면, 의문문에는 자신의 주장이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이다.
- ③ 주제문은 그 표현이 정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 ④ 주제문은 그 초점을 제재의 한정된 국면에 맞추어야 한다. 너무 넓은 범위의 것을 다룰 경우 일관성을 잃기 쉽다.
- ⑤ 주제문은 필자의 의견이나 태도가 드러나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 ⑥ 주제문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 ⑦ 주제문은 두 개의 내용이 양립하여 실질적으로 두 개의 주제문이 되어서는 안 된다.
- ⑧ 주제문은 근거에 의해 증명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주제와 주제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가주제와 참주제 주제문의 예를 제시하였다.

가주제	참주제	주제문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성격	민주주의는 최대 다수의 정치적 의사에 따라 모든 일을 결정하는 정치 이념이다.
대중음악과 순수음악	대중음악과 순수음악의 협연	대중음악과 순수음악의 협연은 대중의 음악적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한다.

〈표 4〉 주제와 주제문

이때 문제분석 및 주제설정과 관련하여 물음에 답해 가는 형식으로 절차를 밟으면서 학습하도록 구안된 아래와 같은 학습지를 사용하면 문제 접근이 보다 용이하게 된다.

44) 김용직, 박민수(1996), *고등학교 작문*, 천재교육, pp.51 ~ 52.

학 습 지 I

논술 과정: 계획하기

학습형태 : 개별학습

1. 학습문제

다음 논술 문제를 읽고, 개인별로〈학습문제〉에 답하시오

〈문제 예시〉

다음 글에는 어지러운 현실을 대하는 두 사람의 삶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 이 두 사람의 태도를 분석한 다음, 이 가운데 어느 하나의 입장을 지지하고 이와 관련하여 자신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삶의 방식을 논술하시오.

〈제시문〉

생략

〈유의사항〉

생략

〈학습문제〉

1. 이러한 논제를 제기한 출제자의 의도에 대해서 말해 보자.
2. 제시문을 읽고, 암시하거나 상징하고 있는 문제들을 찾아보자.
3. 문제 해결을 위해 무엇을 논의해 보아야 할 것인지 생각해 보자.
4. 필자는 이 글을 어떠한 논지를 강조하고 싶은지 돌아가며 각자 말해 보자.
5. 각자 이 문제와 관련하여 무엇을 요구하고 싶은지 돌아가며 말해 보자.

논제를 분석하고 주제를 설정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첫째, 자신의 능력이나 조건에 맞아야 한다. 쓰고자 하는 것이 아무리 중요해도 자신이 다룰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관련 자료들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둘째, 자신의 독창적인 관점이 드러날 수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이 이미 많이 다룬 것이라든지 자신의 관심과는 거리가 먼 주제를 설정하면 글이 피상적으로 흐를 우려가 있다.

셋째, 다른 사람에게도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주제를 설정할 때는 그것이 지나치게 사소하거나 예외적인 것은 아닌지를 검토해야 한다. 다루려고 하는 주제가 그 글을 읽는 사람에게도 의미 있는 것이 되려면 공통 관심사나 시기적·현실적으로 가치 있는 것을 주제로 해야 한다.

2) 지도의 실제

모 대학에서 실시했던 실제 논술시험 문제를 가지고 문제 분석 및 주제설정의 예를 제시한다.⁴⁵⁾

< 논술문제 >

남성과 여성이 사회적으로 평등하게 살아야 한다는 대전제에 대해서는 굳이 별다른 의의를 제기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다음 글에서 이야기하는 이른바 '여성할당제'가 궁극적으로 여성해방과 남녀 평등이라는 이상에 도달할 수 있는 적합한 수단인지에 대해서 1000자 내외로 논술하시오

(1) 요즘은 과거에 남성이 도맡았던 거의 대부분의 직업에 여성이 꾸준히 진출하고 있다. 또한, 모성 보호라든가 호적 제도의 개선을 통해 여성의 권익이 어느 정도 신장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만을 보고 모든 여성이 사회적 제약을 받는 시대가 종식되었다고 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사회적인 이해 관계에서 매우 예민한 요소를 품고 있는 여성의 사회 진출 문제, 특히 전문직이나 공직으로의 진출을 어떻게 장려하고 지원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이렇다 할 대책이 없는 편이다.

(2) 이렇게 저조한 여성들의 사회 진출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서 종종 거론되는 것이 이른바 '여성 할당제'라고 하는 방법이다. 종사자의 일정 비율의 여성을 뽑아, 그들의 사회 진출과 이상적인 평등 사회의 구현을 적극적으로 앞당기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사회적 신분의 상승 효과가 대단히 크다고 볼 수 있는 외무고시와 행정고시에서 여성합격자를 적어도 10% 이상 선발하겠다는 계획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도 없었던 전진적인 사고이다.

(3) 함부로 단언할 수는 없어도 이 제도를 통하여 우리 사회의 각 부문에 적지 않은 여성들이 진출하여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게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것 같

45) 1996학년도 연세대에서 인문계 문제로 출제한 것이다. 글자수가 600자인데 필자가 1000자로 변경했음.

다. 그러나 과연 이 제도가 여성들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고 평등 사회를 실현하려는 의식에 진정 걸맞은 것인지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위 글은 문제와 3개의 제시문으로 되어 있다. 이 논술문제는 문제 자체에서 논제를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어서 논제분석이 비교적 쉬운 편이다. 제시문은 별개의 글이라기보다는 문제의 의도를 납득시키기 위해 덧붙여진 설명 정도이다. 제시문의 내용을 보면 (1)은 여성이 사회진출 특히 전문직이나 공직으로의 진출이 부진한 점을 지적하면서 남녀 평등과 거리가 멀다고 현실을 적시하고 있다. (2)는 여성 할당제의 제안 (3)은 여성 할당제가 여성의 사회진출에 미치는 사회적 영향에 대한 물음을 제기하였다.

셋째 제시문 끝에서 여성할당제가 평등 사회 실현에 걸맞은 제도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유보함으로써 바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논술하도록 하고 있다. 주어진 문제의 내용과 셋째 제시문 끝에서 판단을 유보한 내용이 유사하므로 이 문제는 덜 숙련된 필자도 비교적 논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논술 문제이다. 여성할당제는 여성의 사회적 진출을 촉진하면서 동시에 남녀 평등의 실현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적합한 수단인지에 대해서 묻고 있다. 두 번째 지문에서 제시된 것처럼 여성할당제를 실시하면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촉진되리라는 것은 누구나 쉽게 이해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서는 여성할당제의 실시로 인한 여성의 사회적 진출에 대한 촉진 문제는 일단 접어두고 '여성할당제가 남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인가'라고 논제를 파악할 수 있다.

논제를 파악한 다음에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지 가능한 논술 방향을 모색해 보아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지하거나 반대할 입장을 취할 때 그런 입장에 대한 이유들을 다각도에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 생각될 수 있는 이유들을 몇 가지 관점에서 살펴 보겠다.⁴⁶⁾

첫째, 원칙적인 면에서 보면 이 문제와 관련하여 남녀 평등의 원칙과 기회균등의

46) 김광수(1998)외, 전거서, pp.256~259의 내용을 참조하여 필자가 재구성 및 침삭했음.

원칙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면 여성할당제는 이 두 원칙의 실현에 어떻게 관련되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둘째, 효율성의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여성할당제는 생산성의 측면에서 어떤 효과가 나타날 것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것도 여성할당제를 채택한 기업이나 부서의 입장에서 생산성을 살펴볼 수도 있고 사회 전체적인 면에서 생산성을 따져볼 수도 있다. 이 외에도 생각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관점을 고려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취한다.

예를 들면

- ① 여성할당제는 기회균등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남녀 평등의 적절한 수단이 되지 못한다.
- ② 여성할당제는 남성중심 사회에서 남녀간의 불평등한 현실을 시정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거시적인 입장에서 기회 균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③ 여성할당제는 능력에 의한 평등 원칙에 위배되므로 실시하지 말아야 한다.
- ④ 인간의 능력은 시험점수 등 외형적 수치로 객관적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능력에 의한 불평등이 아니다.
- ⑤ 사회 전체의 생산성 면에서 능력 있는 여성의 사회진출 억제에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등의 여러 입장이 제시될 수 있다.

위의 입장은 어디까지나 생각 가능한 입장들의 예시에 불과하고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위의 여러 입장 중에서 평소의 지론, 관련 자료 수집 여부, 내용의 참신성, 현실성 등 다각도에서 검토하여 하나의 입장을 선택한다.

2. 내용 생성하기 과정

1) 지도 방법

교사는 먼저 브레인스토밍의 개념과 방법 등을 설명한 다음 시범을 보이고 나서 개인별로 학습지의 문제를 충분히 사고하도록 지도한다. 문제에 대한 분석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다음 소집단을 구성하여 브레인스토밍 절차에 따라 토의하도록 한다. 토의가 진행되는 동안 교사는 학습자들이 토의 장면을 관찰하며 필요시 소집단

토의에 개입하여 조력자 안내자 역할을 한다. 브레인스토밍이 끝난 후에도 모둠별로 브레인스토밍 결과를 정리한다. 같은 주제를 가지고 여러 모둠이 브레인스토밍을 할 경우는 브레인스토밍 결과를 발표하여 다른 모둠의 결과와 비교하기도 하고 조언이나 평가를 들음으로써 브레인스토밍 효과를 더 크게 할 수 있다. 다음은 브레인스토밍과 PMI기법을 토의 형식으로 진행하는 요령과 절차를 표로 나타내었다.



단 계	내 용
1. 논제 제시	1주일 전에 논제를 제시하여 학습자가 사전에 조사하고 기초적인 내용을 생성할 수 있도록 한다.
2. 모둠 구성	모듬은 같은 입장을 취하는 사람끼리 구성하여 4~6명 정도가 적당하며 대표자를 선정한다.
3. 진행	<p>브레인스토밍 절차에 따라 진행하되, 브레인스토밍의 규칙을 잘 지키도록 강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습지에 제시된 논점들에 대해서 자유롭게 토의하며 아이디어를 생산한다. 대표자는 가급적 많은 양의 아이디어가 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되 일부 참여자가 논의를 독점하지 않고 참여자가 골고루 자기의 생각을 발표할 수 있도록 토의활동을 통제하고 조절한다. 2. 생성되는 아이디어들은 모듬원 각자 자신의 학습지에 간단히 기록하며 경청한다. 논리도 단순하고 엉뚱한 아이디어를 내놓는 참가자들이 있어 소란스러울 수도 있으나 남의 생각을 비판하거나 평가하지 않도록 주지시킨다. 교사는 순회하면서 자유롭게 허용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진지한 자세를 잃지 않도록 모듬활동을 통제한다. 3. 아이디어를 속성별로 분류해 보고 결합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성하기도 한다.
4. 정리 발표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기록자는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선정된 아이디어들을 학습지에 정리한다. 이때 참가자들은 PMI기법을 통해 문제 해결에 불필요한 항목, 문제 해결에 필요한 항목, 새롭게 발견되는 흥미 있는 항목을 생각해 본다. 5. 전체 학습자를 상대로 모듬별 발표자가 자기 모듬의 브레인스토밍 결과를 발표한다. 6. 모듬별 발표가 끝나는 대로 질의·응답식 전체 토론을 한다. 응답은 경우에 따라 발표자 소속 모듬원이 대신할 수도 있으며, 발표 내용을 보완 수정할 수도 있다. 이때 교사는 토론이 산만해지지 않도록 적절히 발언을 통제한다.
5. 평가 보완	7. 다른 모듬에서 제기한 평가 및 첨삭조언 내용을 기록했다가 모듬원끼리 토의하여 아이디어를 조정한다.

〈표 5〉 내용 생성의 절차

2) 지도의 실제

다음은 '한라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문제'에 대하여 필자가 브레인스토밍을 한 예이다. 브레인스토밍 규칙에 따라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생각들을 빈 공간에 적는다. 이 때 주제와 다소 거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항도 일단 기술하고 나서 나중에 다시 생각해 보아 무관하다면 삭제해도 좋다. 처음부터 의식의 통제를 가하다 보면 기발한 생각이나 많은 생각이 떠오르는데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 막대한 설치비용- 누가 부담하지? -업자 또는 도민이. -업자 반, 도에서 반
- 우선 편해서 좋겠다.-이용자의 편의 도모
- 불 권리-어린이, 노약자, 장애인도 한라산을 구경할 수 있어야
- 관광객 증가-관광수입 증대-도민소득 향상-제주의 밝은 미래-국제자유도시와 연계
- 자연훼손, 경관 훼손-서북벽, 남벽 등 심각한 훼손.
- 복원이 과연 효과를 거두고 있는가?
- 한라산 휴식년제
- 산은 산답게 힘들게 올라가야 제맛이지 -한라산 산신령이 알면 노할 거야.
- 타 시도의 경우 어떻게 하고 있을까?-설악산에 케이블카 설치-어렵잖아 등반객보다 케이블카 이용객이 다섯 배는 될 것 같애.
- 중국 만리장성 케이블카 수 십대가 동시 운영-엄청난 관광객
- 처음엔 시설하면서 자연 훼손이 되지만 등반객이 감소로 거시적인 안목에서 오히려 한라산 보호에 도움이 될 거야.
- 최적의 경비, 최소한의 자연훼손-설치할 경우

위의 내용은 브레인스토밍 규칙에 따라 머리 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통제를 가하지 않고 직접 기술한 내용이다. 생성된 내용들을 분석해 보면 여러 가지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내용이 생성되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왜 케이블카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할까?' 라는 질문에 대해 케이블카 일반 이용객의 입장에서 편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또 노약자, 어린이, 장애자의 입장에서 그들도 한라산을 구경할 권리가 있다는 생

각이 떠올랐다. 필자 주변에서 의외로 제주도민이면서도 한라산 구경을 못한 사람이 다수 있고, 그 중에는 특히 할머니들이 젊었을 때는 생활고에 지쳐서 한라산 구경할 생각을 못하다가 나이가 든 다음에는 육체적 어려움으로 한라산을 구경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안타까움이 이 순간에 떠올랐다.

그 다음은 '제주도'등 행정청이나 관광업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 것이 케이블카를 설치하면 관광객이 증가하고 관광객의 증가는 관광수입의 증대 나아가서 도민의 소득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제주의 미래와 직결된 중요한 문제로 생각되었다.

반대론자의 입장에서 '왜 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할까?'라는 데 대해서 '자연훼손'과 '경관훼손' '막대한 설치비용' 등의 문제가 떠올랐다.

그렇다면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미치면서 설악산에서 케이블카를 타 보았던 경험이 회상되었다. 그 때 케이블카를 타려고 기다리는 행렬의 길게 늘어선 모습이 연상되면서 설악산 등반객보다 케이블카를 이용한 관람객이 많을 것이라고 얼른 생각되었고, 그 중에서 케이블카를 이용할 수 없다면 다수의 인원이 설악산을 찾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설악산을 찾는다 하더라도 케이블카를 타고 가서 볼 수 있는 설악산의 모습은 볼 수 없다는 생각에 다다르면서 앞에서 떠올랐던 '볼 권리'가 다시 강하게 각인되었다.

위에서 브레인스토밍한 내용을 PMI기법으로 다시 조정하면 아래와 같이 된다.

P에 해당되는 내용은 케이블카 설치의 필요성을 말한 내용으로 이용자의 편의도모, 노약자 등의 볼 권리 충족, 관광수입의 증대, 거시적인 면에서 자연훼손의 경감 등을 들 수 있다.

M에 해당되는 내용으로는 반대 입장과 관련된 생각으로, 자연 훼손, 경관훼손, 막대한 경비 등과 논지에 무관한 내용으로, 비용 부담의 주체, 한라산 휴식년제 등의 생각을 들 수 있다.

I에 해당되는 내용으로는 오히려 한라산 보호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들 수 있다.

PMI기법은 내용 생성하기 과정에도 해당되지만 과정 중심 쓰기의 특징인 조정하기 과정을 반영한 활용이다. PMI 활동을 통하여 이미 생성한 내용을 삭제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추가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다음은 '여성할당제는 남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인가'라는 논제에 대하여 4명의 모둠원이 토의의 형식으로 브레인스토밍을 한 예이다. 허용적이고 개방적인 분위기 속에서 토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다소 엉뚱한 이야기를 해도 모둠원들이 웃지 않도록 해야 한다.

S1: 여성할당제가 뭐지?

S2: 왜. 그런 거 있잖아.

S1: 그런 거가 뭔데?

S3: 예를 들면 취직시험에서 몇 %는 여성으로 한다는 것 말야.

S1: 시험 점수가 나빠도 합격시킨단 말야.

S3: 그렇지.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을 할당한다는 거지.

S1: 그러면 불공평하잖아. 시험 점수 좋은 남자는 떨어지고 시험 점수 안 좋은 여자는 합격하고 그런 식이 어딤어.

S4: 왜 우리 주변에도 있어. 이건 일종의 남성할당제인데 말야. 교육대학에 합격자 뽑을 때 여자 남자 따로 뽑으니까. 남녀 커트라인이 달라 만약 따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남자는 합격할 사람이 현재보다 훨씬 적을 수도 있어.

S1: 왜 그런 제도가 필요하지?

S2: 그래서 오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토의하는 거잖아.

S3: 평등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구. 평등이란 똑같이 하는 거잖아.

S1: 무조건 똑같이 하는 건 공산주의 사고 아니야.

S2: 능력에 의한 평등이어야지.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일단 같이 대우해 주는 것이 평등이지.

S1: 그렇다면 시험 점수 낮은 사람을 합격하고 높은 사람은 떨어지면 불평등한 것이라고 했잖아.

S4: 자, 우리 앞서 내가 얘기한 대로 교대 입시에서 남학생 할당을 시키려는 의도가 될까 생각해 보자구. 어떤 제도를 만들 때에는 우리보다는 경험도 많고, 많이 알

고, 똑똑한 사람들이 만들었으니까 그렇게 해야만 하는 어떤 사정이 있을 거야.

S3: 맞아 맞아. 무턱대고 그런 제도를 만들 리는 없어. 무턱대고 만들었다 간 당장 큰 반발에 부딪쳐서 당장 시행도 못 해보고 없어질지도 모르거든.

S2: 그래 그래. 만약에 교대에 여학생만 100% 합격하면 장차 초등학교 여선생님은 전부 여자가 된다고 가정할 수 있겠지.

S1: 초등학교 선생님이 전부 여자가 되면 문제가 있나?

S4: 남자 여자 할 일이 따로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남자가 해야 보다 효과적인 일이 있고 여자가 해야 효과적인 일이 따로 있을 수 있을 거야. 예를 들면 운동회나, 소풍이나 수학여행 같은 행사를 할 때 같은 경우 아무래도 남자 선생님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좋을 수가 있어. 그런 식으로 남자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 교대 입시에서 남자를 할당제로 뽑는 거야.

S3: 우리 아빠가 그러는데 주변환경에 사람들도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는다는 거야. 지금은 자녀들이 한 둘인 가정이 대부분이니까 그런 차이를 잘 모를 수 있지만 오빠 다섯쯤 된 속에서 자란 여자아이는 놀이하는 거나 말투나 남자 닮은 면이 많이 있어.

S2: 그런 걸로 보면 남자 여자 반반이어야 좋겠네.

S3: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다면 그거야 이상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인위적으로 만들려는데 고민이 있는 거지.

S3: 그래서 능력에 의한 평등의 대원칙은 살리려는 취지에서 다수는 점수에 의해서 뽑고 일부만 부득이 특정한 성에 할당을 하는 거지 일종의 절충안이면서 교육지책이지.

S1: 넌 마치 도사 같은 소리만 하는 구나.

일동웃음

S4: 정말 도사가 됐으면 얼마나 좋겠니. 이 세상 모든 사람의 고민을 척척 풀어주는 도사 말이야 아 참 그러면 논술 때문에 고민 안 해도 되겠네.

S3: 점수가 꼭 능력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을까?

S2: 대체로 그렇다고 봐야지.

S3: 그래. 대체로 그럴 수는 있어도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을 거야. 사실 우리가 보는 시험은 그가 알고 있는 지식을 테스트하는 거지. 지식과 능력은 꼭 같지 않잖아. 더욱이 요즘처럼 시험이 쉬워지면 누가 실수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좋은 점수를 맞는 중요한 변수야.

S4: 그래 맞아. 나처럼 실력이 좋아도 시험을 못 보는 사람도 있잖아.

S1: 착각은 자유야. 착각이 심하면 $\times\times$ 이 되는지 알지.

S3: 아는 것은 조금 떨어져도 많은 친구들에게 신망이 있고 리더쉽이 좋은 친구들도 있잖아.

S2: 바로 그거야. 시험 점수 좋은 애가 꼭 능력이나 자질이 뛰어난 건 아니니까. 다소 시험 점수가 떨어져도 할당제에 의해서 필요한 사람을 뽑는 것도 반드시 나쁘지 않은 않다고 할 수 있어.

S4: 여성과 남성의 비율은 반반인데 전문직이나 고위직에서는 여성의 비율이 극히 미미한 것은 문제야.

S1: 그거야 여자들이 그런 쪽에 진출하려고 노력을 안 하니까 그렇지.

S2: 그렇게만 생각해 버리면 오늘 우리는 토의할 필요가 없어. 만약에 여자가 꼭 필요한 자리에 어떤 제도의 맹점 때문에 여자가 그 자리에 있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어. 예를 들어 '여성부 장관' 자리에 남자가 앉아 있다면 어떻게 할까?

S3: 그래 맞아. 여성할당제 논의는 바로 그거야. 필요한 이유야 여러 가지겠지만 꼭 필요한 데 여성이 없어서 못 쓰는 그런 경우는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크나큰 손실일 수 있어.

S4: 그래 그래. 만약에 여성할당제를 실시하지 않아서 점수가 좋은 남성 한 사람이 들어가면 그것은 어떤 면에서 그 당사자 한 사람의 문제일 수 있지만 여성을 위한 자리에 여성을 쓰지 못하면 그것은 전체 인구의 절반이 되는 여성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면에서 보면 여성할당제가 생산성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가 오히려 거시적인 면에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도 있어.

S3: 우리 나라는 전업주부 비율이 세계적으로 높은 편이야. 인구의 절반인 여성들이 적재적소에서 적당한 일을 할 때 전체적인 생산성은 오히려 향상될 수도 있어.

S2: 여성 할당제를 제안하는 것은 그간의 남성중심 사회에서 심한 여성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거시적인 면에서 보면 남녀평등의 길로 나가는 것으로 볼 수 있어.

S4: 자 우리 지금까지 토의한 내용들을 정리해 보자.

대체로 여성할당제를 찬성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어. 찬성하는 이유로 첫째, 여성이 필요한 곳에 여성을 활용하기 위해서 여성할당제를 해야 한다. 둘째, 시험점수는 엄밀한 의미에서 능력이나 자질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점수에 의한 합격여부는 능력에 의한 평등의 원칙에 반드시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셋째, 지금까지 남성중심의 남녀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여성할당제를 제안하고 있으므로 거시적인 면에서 기회균등의 원칙에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넷째, 여성할당제는 오히려 총체적인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위의 내용은 질문형식으로 브레인스토밍을 해서 주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을 생성해내고 있는 예이다. 이렇게 생성된 내용을 바탕으로 논술을 하면 혼자 내용 생성할 때보다 내용이 풍부하며 균형감 있는 논술이 될 것이다.

다음은 '버스 안에 있는 좌석은 모두 치워 버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PMI 기법의 예시이다.⁴⁷⁾

아이디어 : 버스 안에 있는 좌석은 모두 치워 버려야 한다.

P · 버스에 더 많은 사람이 탈 수 있다.

- 버스를 타거나 내리기가 더 쉽다.
- 버스를 제작하거나 수리하는 비용이 더 싸게 될 것이다.

M · 버스가 갑자기 서면 승객들이 넘어질 것이다.

- 노인이나 지체 부자유인들은 버스를 이용할 수 없을 것이다.
- 쇼핑백이나 애기를 데리고 다니기가 어려울 것이다.

I · 한 가지는 좌석이 있고, 다른 한 가지는 좌석이 없는 두 가지 유형의 버스를 생각하게 하는 흥미로운 아이디어이다.

- 같은 버스라도 유형을 달리하면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흥미로운

47) 김영채(1998), 전계서, p.323.

아이디어이다.

- 버스에서는 편안함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없다는 재미있는 아이디어이다.

이 기법은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생성함에 있어서 장점, 단점, 새로운 점에 초점을 맞추어 내용을 생성하도록 하는 방법인데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게 내용 생성은 되지만 브레인스토밍과 달리 내용 생성에 제한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브레인스토밍이나 즉석 말하기 등 다른 내용생성 기법과 결합하여 사용하면 효과적이다. 또 생각이 쉽게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PMI는 대조적으로 생각하기와 무관한 것 같은 두 가지를 연결하여 사고를 촉진하도록 지도되어야 효과적이다.

브레인스토밍에 의해서 생성된 내용 중에서 PMI 기법을 이용하여 내용에 가감과 보완을 하기도 하며, 생각 그물 만들기를 이용하여 정리하거나 유목화할 수도 있다. 즉석 말하기 기법을 이용하여 이야기하다 보면 자신의 취한 입장에 대한 뒷받침 내용을 보다 분명하고 풍부하게 생성해낼 수 있다. 예를 들어 상술한 '여성할당제'에 대하여 여성 취업자의 입장, 남성 취업자의 입장, 여성 운동가의 입장, 고용주의 입장에 따라 즉석 말하기를 하다 보면 자기가 주장할 내용을 보다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고 나의 주장 중에서 반론의 여지가 있는 논리적 취약점도 발견할 수 있다.

아울러 내용 생성하기 과정에서도 전 단계인 계획하기 과정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진다. 이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면서 모둠 토의를 통하여 조정한다.

이 논술의 방향은 출제자의 의도에 맞게 되어있는가?

주제가 참신하고 독창적인가.

유의사항을 충실히 고려한 주제인가.

필자가 자신있게 쓸 수 있는 주제인가.

3. 내용 조직하기 과정

1) 지도 방법

글의 내용을 바르게 구성하기 위해서 필자가 지켜야 할 원리⁴⁸⁾에는 통일성의 원리, 일관성의 원리, 강조성의 원리 등이 있다.

통일성의 원리는 글의 내용을 선택하는 방식에 관한 원리이다. 글에는 일반적인 제재와 종속적인 제재가 있다. 그리고 글에는 글 전체의 주제와 그 주제를 뒷받침하는 종속적인 주제가 있다. 통일성을 갖춘 글을 쓰기 위하여 필자는 종속적인 제재를 선택함에 있어서 반드시 글 전체의 일반적인 제재와 직결되는 종속 제재를 선택해야 하며, 2차적 종속 제재를 선택함에 있어서도 반드시 1차적 종속 제재와 직결되는 제재를 선택해야 한다. 이와 아울러, 필자는 글의 종속 주제를 선택함에 있어서도 글 전체의 주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종속 주제를 선택해야 한다.

통일성을 갖춘 글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글 전체의 주제를 직접 뒷받침할 수 있는 종속 주제들을 선택해야 한다. 글의 본론 부분에 제시되는 종속 주제들이 글 전체의 주제와 아무런 연관성이 없거나, 글 전체의 주제에 비해 상위 개념일 경우에 그 글은 결코 통일성을 갖춘 글이 될 수 없다.

일관성의 원리는 글의 내용을 배열하는 방식에 관한 원리이다. 한 편의 글에는 글 전체의 주제를 뒷받침해 주는 여러 개의 종속 주제가 있게 마련이다. 각각의 주제에는 주제의 내용을 뒷받침해 주는 여러 개의 종속 제재가 있어야 한다. 일관성을 갖춘 글을 쓰기 위하여 필자는 이들 여러 개의 종속 주제 또는 종속 제재를 바른 순서로 배열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종속 주제와 종속 제재는 글 전체를 구성하는 주요 내용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글의 주요 내용을 배열하는 방식에는 시간적 순서에 의한 배열, 공간적 순서에 의한 배열, 논리적 순서에 의한 배열 등이 있다. 논술에서는 주로 논리적 순서에 의한 배열 방법을 쓰게 된다. 논리적 순서에 의한 배열은 추상적 개념이나 현상과 관

48) 교육부(1992), 전게서, pp.264 ~ 266참조.

런되는 주요 내용을 그 내용들 사이의 논리적 관계에 따라 배열하는 방법이다. 내용들 사이의 논리적인 관계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 일반적인 것과 특수한 것, 원인에 해당하는 것과 결과에 해당하는 것, 전체에 해당하는 것과 부분에 해당하는 것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강조성의 원리는 글의 핵심이 되는 주요 내용을 두드러지게 드러내는 방식에 관한 원리이다. 강조성의 원리는 글 전체를 구성할 때에는 물론이고, 하나의 문단을 구성할 때에도 지켜야 할 원리이다.

글 전체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두드러지게 드러내는 방법⁴⁹⁾에는 다음 세 가지가 있다. 첫째, 글의 서론 부분에서 글의 주제와 글을 쓰는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다. 글의 주제와 목적을 분명히 밝힘으로써 필자는 예상 독자로 하여금 무엇이 가장 중요한 내용인지를 바르게 인식할 수 있게 해 준다. 둘째, 특별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을 충분히 제공해 주는 것이다.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독자가 바르게 인식할 수 있게 해 준다. 셋째, 글의 본론을 구성할 경우, 주요 내용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다룸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필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 준다.

문단을 구성하는 과정에서도 강조성의 원리를 지킬 필요가 있다. 하나의 문단을 통하여 필자는 하나의 완결된 생각을 드러낸다. 하나의 완결된 생각이란 중심적인 생각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생각들도 구성된다. 필자는 독자에게 하나의 문단을 통하여 드러내고자 하는 중심 생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숙련된 필자들은 중심 생각을 강조하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사용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장치는 문단의 중심 문장, 즉 소주제문을 그 문단의 처음에 놓는 것이다. 그리고 문단의 중심 생각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 소주제문을 문단의 끝에 반복하여 놓기도 한다. 문단의 중심 생각을 강조하기 위한 또 다른 장치는 소주제문을 문단의 끝에 놓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개요를 작성하는 방법과 개요작성시의 유의점은 다음과 같다.

49) 교육부(1992), 전거서, p.266.

(1) 개요의 작성 방법

- ① 주제의 내용을 두 가지 이상이 주요 논점으로 나누어 대항목을 정한다.
- ② 대항목을 두 가지 이상의 종속 논점으로 나누어 중항목 또는 소항목으로 세분화한다.
- ③ 각 상위 항목과 하위 항목을 일관성 있게 부호나 번호로 표시한다.
- ④ 같은 계열의 번호나 기호에는 대등한 내용이 놓이게 한다.
- ⑤ 개요는 층위적으로 짜야 한다.

(2) 유의할 점

- ① 각 항목의 배열 순서는 논리적 질서를 지켜야 한다.
- ② 항목간의 관계가 명확하고 긴밀히 연관되어야 한다.
- ③ 하위 항목은 상위 항목의 내용을 가능한 한 모두 다루어야 한다.
- ④ 어느 층위에 항목이 하나밖에 없을 때는 그 층위는 설정하지 않는다.

개요를 작성할 때는 주로 단계식 구성 방식을 쓰는데 단계식 구성은 주제의 일관성이나 논리성을 긴밀하게 통제하여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다. 단계식 구성은 3단 구성, 4단 구성, 5단 구성으로 나누는데 이를 요약해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3단 구성	4단 구성	5단 구성
단 계	서론 (도입, 논제제시)	기(起)	주의 환기 과제 제시
	본론 (전개, 논증)	승(承)-전개, 발전	과제 해명
		전(轉)-전환	해명의 구체화
결론 (마무리)	결(結)	요약 및 강조	
특징	논리적 형식이 비교적 엄격함	본론에서 논지의 전환이 마련됨(상반된 의견까지 검토)	4단 구성의 서론을 들로 나눔

<표 6> 단계식 구성

상술한 글의 조직 원리를 바탕으로 먼저 개요 짜기에 대한 설명을 한 다음 시범을 보인다. 설명과 시범이 이루어진 후에는 학습지에 제시된 문제를 가지고 개요 짜기 연습을 개별적으로 한다. 다음에는 모둠별로 모여서 개별적으로 작성한 개요에 대해 토의를 하고 아니면 처음부터 모둠별로 모여 글의 구성방식과 내용 전개방식에 대한 수정된 개요를 작성하는 방법이 있다. 토의에서부터 적합한 개요의 유형을 정하고 개요 짜기 절차에 따라 개요를 짜는 방법도 있다. 모둠에서 완성된 개요를 모둠의 대표자나 구성원 중의 한 사람이 발표하거나 다른 모둠원끼리 돌려보고 다른 모둠원에서 작성된 개요에 대해 조언을 할 수도 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개요는 보다 정교해질 수 있다.

다음은 '과소비의 극복과 우리의 미래'라는 주제로 단계식 구성 방식에 따라 작성된 화제개요와 문장개요의 예시이다.

〈화제개요의 예〉



서론 : 과소비로 인한 사회 병리현상

본론(1) : 과소비로 인한 문제점

- ① 가계 파탄 ② 사회 불안의 한 요인
- ③ 국가 경제의 경쟁력 약화

본론(2) : 과소비의 원인

- ① 명분, 형식 위주의 과시욕 ② 물질 만능주의

본론(3) : 과소비의 극복 방안

- ① 의식 개혁- ㉠ 개인 차원 ㉡ 국가 차원

결론 : 과소비 극복과 우리의 미래

위의 개요는 본론 부분을 셋으로 나눈 5단 구성방식을 취하고 있다. 우선 서론에서 과소비 현상이 심하다는 내용으로 문제를 제기하였다. 본론에서는 과소비의 문제점을 가정, 사회, 국가 차원에서 분석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으로 의식적인 면과

사회적인 면에서 파악하고 있다. 원인이 규명되면 그에 따른 극복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원인에서 분석한 의식면과 사회적, 국가적 차원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결론 부분에서는 과소비를 극복하고 밝은 미래를 열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함으로써 끝맺고 있다.

위의 개요는 서론의 문제 제기, 본론의 과제 해명, 결론의 실천 촉구로 전체적인 면에서 논리성이 뛰어나다. 본론 내에서도 문제 진단, 원인 규명, 극복 방안 순으로 논리적 체계를 갖추고 있다. 또한 본론에서 하나의 소주제에 따른 종속 주제를 2~3 개씩 적절히 층위적으로 잘 구성하였다.

실제 논술 과정에서는 문장 개요로 작성하는 것이 좋으나 처음부터 문장개요를 작성하려 하다 보면 글의 흐름을 놓치거나, 시간 안배를 잘 못해서 제한된 시간 내에 논술 한 편을 마무리짓지 못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내용 조직 단계에서는 주로 화제개요로 작성하는 경우가 흔하다. 만일 이 단계에서 화제개요를 작성했다면 다음 단계인 표현하기 단계에서 화제개요를 문장개요로 바꾸어 보면서 개요의 내용을 다시 재조정할 수도 있다. 다음은 화제개요를 문장개요로 바꾸어 놓은 예이다.

서론 : 과소비로 인하여 사회 병리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본론(1) : 과소비는 국가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 ① 분수를 넘는 과소비는 가게 파탄을 일으킨다.
- ② 계층간의 위화감을 조성하여 사회 불안을 야기한다.
- ③ 과소비는 국가 경제의 대외 경쟁력을 떨어뜨린다.

본론(2) : 불건전한 경제관이 과소비의 원인이다.

- ① 인습화된 명분, 형식 위주의 과시욕이 과소비의 원인이다.
- ② 물질로 평가의 기준을 삼는 물질 만능주의가 원인이다.

본론(3) : 과소비에 대한 극복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 ① 제도와 규범보다 의식의 개혁을 해야 한다.
- ㉠ 개인 차원으로 의식의 개혁이 필요하다.
- ㉡ 국가적 차원으로 홍보,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결론 : 이러한 과소비의 극복은 우리의 미래를 밝게 해 준다.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서 전 단계인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 대한 조정하기 과정을 거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여 협의 조정한다.

- ① 불필요한 내용이 없는가?
- ② 중복된 내용이 없는가?
- ③ 추가해야 할 내용은 없는가?
- ④ 주장과 논거 사이에 적합성은 어떠한가?

위와 같은 사항에 답하는 형식으로 개별적으로 점검을 하거나 모두 토의를 거쳐서 내용을 보완하고 개요 짜기에 반영하면 되겠다. 이때 조정하기에 너무 집착하면 다음 과정으로의 진척이 어렵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2) 지도의 실제



'한라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제로 위에서 브레인스토밍에 의해서 생성된 내용은 가지고 개요 짜기의 예를 보자.

우선 브레인스토밍한 내용 중에서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긍정적 입장과 관련해서 생성된 내용의 항목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이용자의 편의 도모
- 노약자, 장애인 등의 불 권리 충족
- 관광수입의 증대
- 거시적 관점에서 자연훼손 경감

위의 항목들은 본론에 대한 내용임을 쉽게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본론을 전개하기 위해서 서론과 결론의 내용은 전체적인 논술의 체계를 생각하면서 개요를 짜야 한다.

서론 부분에서는 주제에 대한 언급과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좋으므로

①한라산 케이블카 설치 논란 대두

②한라산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찬·반 양론 정도로 제시하면 좋을 것이다.

본론부분에서는 위의 생성된 내용의 항목을 보면 위의 세 항목은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이점이나 긍정적 측면을 주로 언급한 내용이고 '자연훼손 경감'은 반대론자의 주장에 대한 반론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론 부분을 둘로 나누어 본론1은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의 필요성'으로 하고 본론2는 '한라산 보호와 케이블카 설치'로 하여 보호론의 입장과 개발론의 입장을 절충한 현실성 있는 대안이 케이블카 설치임을 언급한다.

결론에서는 필자의 주장을 명시적으로 제시하면서 그에 따른 보완사항이나 유의점을 언급하게 된다. 따라서 현실적인 면에서 케이블카 설치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면서 설치에 따른 최소한의 피해를 위한 제반 조치에 대한 언급을 하면 좋을 것이다.

위의 개요 짜기의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이 될 것이다.

1. 서론 ①한라산 케이블카 설치 논란 대두

②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찬반 양론

2. 본론 ①한라산 케이블카 설치의 필요성

㉠이용자의 편의 도모

㉡불 권리 충족

㉢관광 수입의 증대

②한라산 보호와 케이블카 설치

㉠한라산 보호의 당위성

㉡인간의 욕구 실현

㉢보호와 개발의 조화

3. 결론 케이블카 설치의 불가피성

4. 표현하기 과정

논술에 있어서 표현하기는 다른 글쓰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내용 생성하기 단계 및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서 생성된 내용을 보다 구체화시키고 조직적으로 체계화시켜 이를 다시 적절한 언어형식으로 옮겨 놓는 것을 의미한다. 즉 사실상 처음으로 텍스트를 생산하는 단계이다. 그러나 이것이 완결되고 고정된 텍스트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후속과정으로서 고쳐 쓰기 단계에서 보완이나 수정이 가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표현하기 단계에서 필자는 예상 독자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글의 목적, 주제, 문제 상황 등을 고려하면서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제반 상황을 고려하면서 효과적으로 표현해야 한다는 중압감 때문에 논술 쓰기는 진전되지 못하고 실제로 1시간에 서른 부분만 몇 번이고 고쳐 쓰다가 논술을 완성하지 못하고 끝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것은 결과 중심 논술 쓰기에서 초고를 하나의 완결된 텍스트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대학 논술 고사에서도 제한된 시간 내에 간단한 다듬기 정도만 행해지고 사실상 초고가 완결된 텍스트로 고정되어 버리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술지도 방법이나 현상이 사실상 학생들의 논술능력 신장에 별 도움이 되지 못했다. 논술 쓰기 지도는 꼭 대학 논술고사라는 특수한 상황을 전제로 해서 지도할 필요는 없다. 논술교육을 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다양한 글쓰기의 상황에서 요구되는 다양하고 고차원적인 사고력을 배양하고, 문제 해결능력을 신장시키는데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능력을 대학에서는 논술고사라는 형식을 통해 측정하고 있을 따름이다.

따라서 논술 문 쓰기 과정의 지도에서는 고쳐 쓰기 단계에서 수정 보완이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해 놓고 한 편의 논술을 생산해낼 수 있는 전략으로 부분적 얼른 쓰기 전략과 전체적인 초고 쓰기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

1) 부분적 얼른 쓰기

얼른 쓰기는 작문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부분별로 글을 빨리 쓰도록 하는 전략이다. 문법적으로 완전하게 표현하고, 글의 내용도 완벽하게 구상하고 조직한 다음에 쓰려고 하다보면 이미 생성해 놓은 아이디어를 자연스럽게 문장화하지 못하고 사고의 흐름을 놓칠 뿐 아니라 다음 문장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선수과정인 내용 생성과 내용 조직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없으려니와 텍스트 생산 초기 단계에서 굳이 완벽주의에 사로잡혀 글쓰기에 대한 증압감을 자초할 필요가 없다. 아이디어는 글을 쓰는 과정에서도 생성될 수 있으며 이미 생성된 아이디어가 조정이나 삭제될 수도 있는데 이것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부분적으로 생각나는 내용들을 문장화할 필요가 있다.

부분적 얼른 쓰기는 문장별로 될 수도 있고 여러 개의 문장이 연속적으로 쓰여질 수도 있다. 이미 작성된 개요의 어느 항목에 대한 내용이라도 쉽게 문장화할 수 있는 부분부터 쓰고, 꼭 차례를 지키지 않아도 무방할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형식이나 문법적 요소 등에 구애를 받지 않고 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대개의 학습자들은 형식적 요건이나 문법적으로 적합한 표현에서 겪는 어려움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아이디어의 생성과 조직 및 이를 바탕으로 한 텍스트 생산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술한 바와 같이 후속 과정을 통하여 문법적 표현이나 형식적 요건 등이 보완될 수 있는 점도 있기 때문이다.

이 단계에서는 개요의 모든 항목에 대하여 꼭 써야 한다는 부담도 갖지 말아야 하며 지나치게 많은 양의 글을 쓰지 않도록 지도해야 한다. 문장화되지 못한 개요 항목에 대해서는 초고 쓰기 단계에서 보완될 수 있으며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얼른 쓰기 자체가 크게 부담스러워져서 후속과정에 결국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얼른 쓰기를 할 때에는 다음에 제시하는 형식⁵⁰⁾을 이용하면 효과적이다.

50) 육우균, 전게서, p.47에서 재인용.

주제 : _____

I. 서론

중심문장 : _____

보조문장 _____

II. 본론

중심문장 _____

보조문장 _____

III. 결론

중심문장 _____

보조문장 _____



다음은 '올바른 가족 제도'라는 주제에 대한 '화제 개요'의 예시이다.

I. 가정의 의미

II. 가정의 두 가지 형태

1. 대가족 가정 2. 핵가족 가정

III 대가족과 핵가족의 특성

1. 대가족의 특성

- (1) 집단 거주 생활
(2) 상호 의존과 유대

2. 핵가족의 특성

- (1) 가족간 의존도 결여

(2) 가족간 대화의 결여

IV. 핵가족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노력

1. 가족 구성원의 대화와 노력
2. 친척들과의 유대성

다음은 위의 화제개요를 바탕으로 얻은 쓰기를 한 예시이다. 화제 개요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시켜 내용이 보다 분명하도록 완전한 문장의 형태로 진술하면 된다. 만일 논거가 부족하면 논거에 해당될 내용을 보완하는 과정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쓸 수도 있다.

가정은 가족 구성원이 휴식을 취하고 사랑과 행복을 느끼며 삶의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생의 안식처이다. 그런데 가정의 형태가 대가족 중심에서 부모와 자녀만이 사는 핵가족 형태로 바뀌면서 가정의 기능이 달라지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올바른 가족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대가족 제도는 다수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농경위주의 전통적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정의 형태이다. 여러 대가 하나의 울타리 속에 같이 살면서 생활하기 때문에 상호간에 의존과 유대감이 강했다.

그러나 직업이 분화되고 직업에 따라 각지에 흩어져 살면서 종래의 대가족은 해체되고 부모와 자녀로만 구성되는 핵가족으로 바뀌게 되었다. 핵가족 가정에서는 가족내의 사랑과 관심은 돈독하지만 가족 외의 방계 혈족에 대한 공감대가 미약하다.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식이 약화되고 자기 중심적이 된다.

현대 사회의 특성상 핵가족 경향이 점차 증대되는 것은 불가피하겠지만 전통사회의 대가족 가정의 사랑과 유대를 결합하여 바람직한 가족 제도를 이루어야 하겠다.

2) 전체적 초고 쓰기

부분적 얻은 쓰기가 생성된 내용의 문장화에 중점을 둔 것이며 체계적이지도 않은데 비해 전체적 초고 쓰기는 이미 조직된 개요에 따라 형식적 요건을 갖추면서

전체적으로 텍스트를 생산하는 맨 처음 단계이다. 형식적 요건을 갖춘다는 것은 논술문의 형식을 갖추면서 하나의 조직체로서의 논술을 생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 단계인 부분적 얼른 쓰기는 이미 작성된 개요 항목 중에 문장화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 단락 자체도 완결되지 못하거나 서론, 본론, 결론 부분이 완결되지 않은 상태로 두서없이 미완의 상태로 있다면, 전체적 초고 쓰기는 글의 설계도인 개요에 따라 체계를 잡으면서 전체적으로 서론, 본론, 결론 형식을 갖추어 실제로 하나의 완성된 글을 생산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텍스트 생산이 주목적이므로 부분보다는 글의 전체성에 중점을 두어 쓰도록 지도해야 한다. 따라서 초고 쓰기 단계에서는 단락의 구성과 논술의 형식을 갖춘 전체 논술 쓰기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다.

단락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단락의 구성원리와 방법에 대한 기본 지식을 바탕으로 전 단계에서 생성된 내용을 수정 보완하면서 단락을 완결하게 된다. 보통 단락은 핵심개념을 포함하는 소주제문과 소주제문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몇 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다.

소주제문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 (1) 소주제문의 내용은 글의 주제와 관련되는 것이어야 한다.
- (2) 소주제문은 알맞은 범주의 내용을 포괄해야 한다.
- (3) 소주제문은 단일한 내용을 다루어야 한다.
- (4) 소주제문은 간결해야 한다.
- (5) 소주제문은 명확하게 표현되어야 한다.

위의 요건을 고려하면서 소주제문이 작성되면 다음에는 아래에 기술하는 뒷받침 문장의 요건을 고려하면서 뒷받침 문장을 생성하고 요건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

- (1) 뒷받침 문장은 소주제문과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 (2) 뒷받침 문장은 소주제문을 충분히 발전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뒷받침 문장은 소주제문의 내용을 상세하게 풀이하거나, 이유를 제시하거나,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거나 관계되는 유명 인사의 말을 인용하거나 하여 소주제문의 내용을 구체화시켜야 한다.

미숙한 필자는 소주제문만 써 놓고 뒷받침 문장의 생성 표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뒷받침 문장의 유형을 생각하면서 그에 따라 사고를 활성화시키다보면 뒷받침 문장 생성이 보다 용이해지고 적합한 뒷받침 문장이 될 수 있다. 즉 소주제문을 자세히 풀어 설명하거나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고 설명할 방법을 찾는다면, 소주제문에서 단정을 내리거나 주장한 내용의 이유를 생각하거나,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바탕으로 미지의 사실을 유추하는 방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소주제문의 원인을 제시하거나 소주제문을 원인으로 한 결과를 따져 보면서 생각을 활성화시키는 전략을 택하여 뒷받침 문장을 생성하고 기술할 수 있다.

이 때 뒷받침 문장이 논지에서 벗어나거나 소주제문보다 일반적 진술이 되어서는 안 되며 소주제문의 내용을 중언부언 반복해서는 안 된다.

다음으로 단락 구성의 원리에 의해서 단락을 써야 한다. 단락 구성의 원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 단락 안에서 다루는 화제는 하나이어야 한다.

둘째, 한 단락을 구성하는 여러 문장들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연결되어야 한다.

셋째, 예상 독자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뒷받침 문장이 제시되어야 한다.

글의 기본적인 구조를 3단 구조(서론, 본문, 맺음말)나 4단 구조(기, 승, 전, 결) 혹은 5단 구조(주의 환기, 과제 제시, 과제해명, 해명의 구체화, 행동의 촉구와 전망) 등으로 나누기도 한다. 4단 구조나 5단 구조가 3단 구조의 변형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3단 구조를 중심으로 서론, 본문, 결론에서 갖추어야 할 요건과 주의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실제 논술 쓰기에 활용하면 전체적인 논술을 생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서론 쓰기>

서론에서는 주로 글을 쓰게 된 동기, 목적, 필요성 등을 밝힘으로써 독자의 호기심을 끌고 독자로 하여금 끝까지 글을 읽게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써야 한다. 서론의 길이는 대체로 글 전체 분량의 1/5 내외 분량이 적합하다. 서론이 너무 짧으면

서론에서 다룰 내용을 다 쓰기가 어렵고, 서론이 너무 길면 독자의 흥미를 잃거나 본론에서 쓸 내용과 중복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서론의 유형으로는

- ① 일반화되어 있는 견해나 어떤 현상 중에서 다시 생각하거나 반성해 볼 필요가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제시하면서 시작하기.
- ② 논의할 대상의 개념이 생소하거나 새롭게 정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개념을 정의하면서 시작하기.
- ③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갖고 있거나 최근에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언급하기.
- ④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질문으로 시작하기.
- ⑤ 글의 주제를 밝히면서 시작하기 등의 방법이 많이 쓰이고 있으므로 학습자는 이런 방법들 중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방법을 선택해서 서론을 쓰면 좋을 것이다.



<본론 쓰기>

논술에서 본론은 자기 주장의 정당함을 밝히거나 상대방 주장의 부당함을 증명하거나 제3의 대안을 제시하고 그 대안의 타당성을 논리적으로 해명하는 부분이다.

본론에서는 서론 부분에서 제시한 글의 목적, 주제, 방법, 문제점 등 화제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되고 서론에서 밝힌 문제점을 충분하고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못해도 좋은 논술이 되지 못한다.

논술에서 본론 쓰기 요건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들고 있다.

첫째, 어떤 주장이 다른 사람에게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그 주장을 뒷받침해 줄 근거가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하나의 주장에 대한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그 중에서도 가장 명확하고 공감하기 쉬운 논거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논술에서는 사실을 근거로 삼는 것이 가장 좋으며 그렇지 못할 경우 일반적인 인식이나 신뢰성 있는 통계 수치 등을 근거로 내세우기도 한다.

둘째, 논리적으로 정당한 내용이어야 한다. 논거를 바탕으로 추론하여 주장을 이

끌어 내는 과정이 논리적으로 정당해야 한다. 논술에서 논리적 정당성은 풍부하고 참신한 내용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요건중의 하나이다. 논리 전개 방식과 오류의 여러 유형에 대한 지식을 내면화함으로써 글의 전개 과정에서 나타나기 쉬운 비논리적 표현을 하지 않도록 하는 훈련도 필요하다.

셋째,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서로 반대되는 주장이 하나의 논술문 안에 공존함으로써 필자의 주장이 애매하거나 주장을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 주장과 무관한 논거가 있다든지 서로 모순되는 논거가 하나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경우도 주장을 약화시키므로 주의해야 한다.

〈결론 쓰기〉

결론은 논리 전개의 산물로 필자의 주장이 핵심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다. 결론은 본문에서 전개해 온 추론 과정의 필연적인 귀결이어야 한다. 작위적으로 결론을 이끌어 내서는 안 되며 아무리 참신한 발상으로 이루어진 결론이라도 본문으로부터 필연적으로 도출된 결론이 아니면 안 된다. 본문을 되풀이하는 듯한 내용으로 진술하기보다는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글 전체의 논지를 압축적으로 나타내 주어야 한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제언이나 전망을 제시하기도 하고, 독자에게 당부하는 형식으로 결론을 쓰기도 한다. 전체적인 초고 쓰기에서는 상술한 서론, 본문, 결론 쓰기의 요건을 고려하면서 전체적인 면에서 논리의 일관성이나 체계성도 아울러 고려하면서 써야 한다.

다음은 전술한 '올바른 가족제도'에 대한 얼른 쓰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초고 쓰기를 한 예이다.

I. '가정'은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 생활하는 집단으로서 그 구성원의 사회적 기반이며 안식처이다.

II. 그런데 이 가정은 그 형태가 유동적인 것이어서 시대나 사회의 성격에 따라 모습을 달리하게 된다. 대가족 가정과 핵가족 가정은 그 집단의 크기와 중심을 이루는 구성원이 누구냐에 따라 나누어진 가정의 다른 두 모습이라 하겠다. 대가족은

농경 중심적 전통 사회에서의 가정의 모습이요, 핵가족은 공업화로 근대화된 도시형의 가정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Ⅲ. 가족들이 모두 토지에 매달려 농사를 지어야 했던 농경 사회에서는 노동력 집약을 위해 자연히 대가족을 이루어 살았고, 가족 구성원들은 농사의 성공을 기원하며 하나의 공감대를 형성했다. 즉, 그들이 얼마만큼 협동하는가에 따라 그 해 농사의 성패가 달려 있기에 한마음으로 단결하고, 서로 의존하며 살았던 것이다.

그에 반해 현대 사회에는 수많은 직업이 존재하고 있으며 사회의 요구에 따라 복잡성과 전문성을 더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한 가족 내에서 각 구성원이 갖는 직업이 다양해지고, 자신의 분야에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 다른 방면에 관심을 기울일 이유가 없어져, 가족간의 의존까지도 줄고 공감대의 형성이 어렵게 되었다. 공동의 관심사가 준다는 것은 대화의 감소와 직결되며, 계속 방치하면 결국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마저 소멸해 버리고 말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도 가족 구성원이 서로를 이해하고 아껴 주는 사랑만 있다면 정서적 유대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Ⅳ. 과거 대가족 가정에서 자연 발생적 요소로서의 훈훈한 사랑과 굳은 유대를 현대에 사는 우리에게 부활시키려면 구성원 사이에 더욱 많은 대화와 의식적인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와 함께 핵가족으로 분가한 친척들과의 유대 또한 경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대가족 가정에서의 이러한 장점을 더한 핵가족 가정이야말로 과거와 현대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고 현대의 비인간화, 개인주의적 풍조와 자녀 교육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얼른 쓰기 내용을 바탕으로 전체적인 논술의 구성 체계를 생각하면서 서론, 본론, 결론에 들어갈 내용이 갖추어지도록 하고, 단락의 원리를 고려하면서 주제문과 뒷받침 문장간에 결속성이 있게 쓰도록 주의한다.

5. 고쳐 쓰기 과정

1) 지도 방법

초고를 쓰고 난 후에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은 모둠 학습을 통한 동료의 조언하기 전략과 교사의 조언하기 전략이 주로 쓰일 수 있다.

학습자들은 자신이 쓴 초고를 다시 고쳐 쓰는 것을 매우 어려워한다. 그것은 초고 작성자체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며 자기가 쓴 초고의 문제점들을 스스로 발견해 내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같은 주제에 같은 입장에서 토의하고 난 후에 쓰게 되면 논술문의 전반적 내용이나 구조에 어느 정도 유사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같은 모둠원끼리 어떤 기준에 의해서 글을 서로 돌려보고 조언해주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한 일이다. 왜냐하면 조언자도 같은 주제와 같은 입장에서 논술을 썼기 때문에 비교적 많이 생각하고 있어서 내용도 잘 알고 있고 조언자의 글과 비교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음은 첨삭 조언하기 절차 및 요령⁵¹⁾에 대한 서술이다.

〈초고 첨삭·조언하기 절차〉

1. 모듬내 논술 평가 관점이나, 평가 부분별로 평가 전문가를 정한다.
2. 초고를 돌려읽으며 각자 맡은 평가 관점이나 평가 부분별로 첨삭한다.
3. 첨삭 내용을 수용적인 자세로 읽어본다.
4. 각자 돌아가며 관점별 총평 및 첨삭 소감을 말하고 상호 첨삭 내용에 대하여 토의를 한다.

〈첨삭·조언하기 요령〉

1. 형식문단에 순서대로 (1), (2) ... 의 문단 부호를 붙여 첨삭 조언할 문단을 지시한다.
2. 첨삭 조언할 문장이나 어구의 앞에는 순서대로 ①, ②, ③ ... 의 번호를 붙인다.

51) 최윤길(1999), 전게서, p.145.

3. 간단한 단어나 어구의 수정은 해당 단어나 어구 아래 밑줄을 긋거나 원고지 사용법상의 부호를 사용하여 첨삭한다.

4 부분에 집착한 나머지 전체를 보지 못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접근한 다음, 부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

5. 개인별 상호 첨삭하는 경우 첨삭자의 번호와 이름을 초고 작성자의 번호, 이름 아래 기재하도록 하고, 여러 사람이 돌려보며 첨삭하는 경우엔 각자 사용한 펜의 색깔로 자기 이름을 기재하도록 하면 효과적이다.

이 때 기준 설정의 문제가 되는데 부분적 요소보다는 전체적인 면에서 조언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제한된 시간 내에 세부적인 요소까지 보고 조언하려고 하다 보면 극히 일부분만 보고 전체적인 수정 보완 대상을 놓치기 쉽기 때문이다.

다음 학습지에 제시된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조언할 수 있다.



학습지 Ⅲ

과 정 : 고쳐 쓰기

학습 형태 : 개별학습 · 토의 학습

학습 활동 : 동료 조언하기

*동료의 논술을 주의 깊게 읽고 다음 물음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
하십시오

- ① 글은 계속 읽고 싶은 마음이 드는가?
- ② 첫 단락을 읽고 쓰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가?
- ③ 글의 배열은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는가?
- ④ 중심 생각이 세부적인 내용과 증거들에 의해 뒷받침되어 있는가?
- ⑤ 결론은 본문에서 자연스럽게 이끌어져 나온 것인가?
- ⑥ 결론이 독자에게 만족을 주는가?
- ⑦ 전체적으로 빼어도 될 부분이 있는가?
- ⑧ 논지에 반대되는 내용은 없는가?
- ⑨ 글의 제목은 중심 생각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가?

다음은 지도교사의 조언하기 전략을 들 수 있다. 가급적 글을 쓰고 난 직후에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학생들을 동시에 조언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모둠에서 샘플을 택하여 즉석에서 조언을 하고 다른 작품들은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조언을 해주는 것이 좋다. 사전에 모범 예시문을 만들어 학생들이 자기가 쓴 논술과 비교하면서 고쳐 쓰기를 할 수도 있다.

교사의 조언하기 과정에서는 글 전체 수준, 단락 수준, 문장 수준, 단어 수준, 표현의 적절성 면에서 아래와 같은 세부적인 관점을 염두에 두고 구체적으로 조언을 해야 한다.

조언하기의 관점

<글 전체 수준>

(1) 글 전체가 명료하게 짜여져 있는가? (2) 필요한 세부 내용들을 적절히 제시하고 있는가? (3) 글 전체를 통하여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가? (4) 적절한 제목을 사용하였는가? (5) 글의 첫 문장은 독자의 관심을 끌 수 있도록 주의해서 만들었는가?

<문단 수준>

(1) 각 문단들은 논리적으로 전개되어 있는가? (2) 각각의 문단은 글 전체에 대하여 적절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가? (3) 각 문단은 글의 통일성과 일관성의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가? (4) 각 문단에는 하나의 중심 문장이 있는가? (5) 문단이 시작되는 곳에서 들어 쓰기를 하였는가? (6) 문법적인 문장, 적합한 문장들을 사용하여 문단을 구성하였는가?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문장 수준>

(1) 문장 형식들이 다양하게 사용되었는가? (2) 문장의 길이들은 다양한가? (3) 각 문장들이 명백하게 진술되었으며, 또한 문법적으로도 완결된 것인가? (4) 수식어와 피수식어는 바르게 연결되었는가? (5) 주어와 서술어 사이의 호응은 적절한가? (6) 중심적인 생각과 종속적인 생각이 문법적으로 적절하게 연결되었는가? (7) 문장 부호는 적절하게 사용되었는가? (8) 문장들 중에서 보다 간결하게 표현될 수 있는 문장은 없는가? (9) 각 문장들은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가?

<단어 수준>

(1) 단어 사용은 명료하고 정확한가? (2) 글의 문맥과 관련하여 단어 사용이 적절한가? (3) 국어 어법에 맞게 단어를 사용하였는가? (4) 불명확하거나 지나치게 일반화된 의미를 지닌 단어들을 사용하지는 않았는가? (5) 보다 적절한 단어들로 대체할 수 있는 단어는 없는가?

<표기법 측면>

(1) 모든 단어들은 맞춤법에 맞게 표기하였는가? (2) 마침표 및 쉼표의 사용은 적절한가? (3) 인용 부호의 사용은 적절한가? (4) 글씨는 깨끗하게 쓰여졌는가? (5) 글 전체에 대하여 필자로서 최선을 다한 흔적이 나타나 있는가?

(2) 지도의 실제

다음은 '여성 할당제는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인가'라는 논제에 대한 학생의 글을 제시하고 모둠 내에서 고쳐 쓰기에 대한 조언을 하기 위해 학생 전문가를 선정하고 조언한 내용이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예시이지 조언 내용의 적합성 면에서는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요즘 과거에 비해 인권이 놀라울 정도로 신장되면서 모든 면에서 '평등'이라는 개념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①옛날보다는 낫지만 아직도 남녀간의 평등이 안 이루어져서 여성 단체의 권리 주장이 끝나지 않고 있다.

남녀 평등을 이루기 위한 그들의 요구 중 받아들여진 것으로 '여성 할당제'가 있다. 이 여성할당제는 여성의 사회진출과 취업을 위해 회사나 기관에서 일정 비율로 여성을 뽑는 것이다.

이 제도는 분명 ②엄청난 장점이 있다. 인사부장을 비롯한 상관들의 선임관 때문에 취업에 불이익 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여자의 사회 진출을 도와 옛날의 주부로서만의 신분을 벗어나고 한 ③인간이 자립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이 제도를 통해 남성들이 10%의 취업 기회를 잃는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오히려 역으로 10%의 남성들이 평등의 권리를 잃는다. 과거 흑인의 일정 비율 고용을 의무화시킨 미국과도 비슷한 상황으로 당시 백인들은 실력이 떨어지는 흑인들에 대해 엄청난 분노를 터뜨렸다. 꼭 여성의 실력이 없다는 것인 아니지만 충분히 이러한 상황에 이를 수 있다.

결국 여성 할당제는 여성들의 사회진출을 보장하지만 남성의 평등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남녀 평등의 해결책이 되지는 못한다. ④여성이 취업에 실패하면 한 명이 굶지만, 남자가 직업이 없으면 한 가정이 굶는다. 가장 좋은 대안은 성별에 치우치지 않고 능력을 제대로 평가하고 능력에 따라 배치하는 상관을 양성하는 것이다.

다음은 이 글에 대한 전체적인 수준에서 학생 전문가의 조언한 내용이다.

- ① 전체적으로 많이 미흡한 면이 있는 것 같음.
- ② 분량도 1000자에 많이 모자람.
- ③ 주제도 이 글이 요구하는 것에서 벗어난 측면이 있음.

④ 그러나 나름대로 여성 할당제의 단점을 제시하고 백인과 흑인간의 불평등과 갈등문제를 비유한 것은 괜찮음.

조언 내용이 추상적이고 비교적 적은 느낌이 들지만 조언자를 격려함으로써 점차 동료의 조언 활동을 점차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며 필자와 토의를 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은 서론, 본론, 결론에 대한 학생 전문가의 조언 내용이다.

(1) 서론이 명확하지 않음. 무엇을 쓸지 파악하기 어려움.

(2) 본론 첫 단락은 서론에 포함시켜 이 글이 여성 할당제에 관하여 논하는 것임을 보여줄 필요가 있음

(3) 본론 셋째 단락에서 여성 할당제의 단점이 남성들의 평등권 상실에만 국한되는가? 오히려 여성의 능력을 과소 평가한 것일 수도 있다. 차차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가는 상황에서 그것을 어떤 비율 이상으로 굳이 제도화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논의가 좀더 들어갔으면 좋겠음. 이 글이 여성 할당제로는 남녀 평등 실현이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주장인데 그럼 여성 할당제가 지닌 한계나 문제점에 대한 보다 깊은 생각이 요구됨.

다음은 문장 수준에 대한 학생전문가의 조언 내용이다.

- ① 불필요한 표현 → 삭제해도 괜찮음
- ② 같은 표현은 좋지 않음. 필자의 주관적 느낌이 들어감
- ③ '인간의 자립'의 의미는?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것인가 아니면 자아실현을 이루는 것인가? 명백하지 않음

④ 문장은 너무나 인습적인 가부장적 사고에 사로잡힌 주장. 생각의 전환이 요구됨

다음은 동일 주제에 대한 지도자의 조언 및 침삭 내용의 예시⁵²⁾이다.

① 최근에 여성 할당제에 대하여 논란이 크게 일고 있다. ② 여성 할당제란 기업체와 공직에서 의무적으로 지원자의 일정 비율을 여성으로 뽑으라는 것이다. ③ 그러나 남녀가 평등하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지만 과연 여성 할당제가 남녀 평등에 적합한 수단인지 의심스럽다.

④ 무엇보다도 현재 우리 나라에서 남녀 차이를 고찰할 때에 여성 할당제는 여성에게 특혜를 주는 제도이다. ⑤ 진정한 평등이란 능력에 따르는 평등한 기회를 주는 것에 있다. 여성들이 능력이 떨어지는데 여성들을 뽑는다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⑥ 사회 전체적으로 비효율성이 제고될 것이다. ⑦ 하향식 평준화의 우려가 있는 것이다. ⑧ 그러므로 진정으로 남녀 평등을 실현하겠다면, 먼저 여자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⑨ 그래서 여성들이 남성들과 동등한 능력을 갖추면 여성 할당제 같은 무원칙적인 법 없이도 남녀 평등은 실현될 것이다.

사람들은 남녀가 능력 차이가 없는 경우에도 여성보다는 남성을 뽑는 일이 많다고 한다. ⑩ 아직 우리 나라는 가부장적인 유교 사상의 전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여성에 대한 차별이 많다. 진정한 남녀 평등을 이룩하려면 이러한 전통적인 인습을 버려야 한다. ⑪ 이러한 전통적인 인습은 금방 고쳐지지 않고 교육을 통해서 바꾸어야 한다. ⑫ 실제로 우리나라는 교육의 기회도 여성들에게 적었고, 성차별적인 점이 많았다. ⑬ 가정은 여학생들에게만 가르쳤고, 기술은 남학생의 과목이었다. ⑭ 그러므로 학교교육을 개혁해서 학생들이 남녀가 똑같다고 배울 수 있게 해야 한다.

여성 할당제 같은 제도보다는 여성에게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학교교육을 개혁하는 것이 진정한 남녀 평등을 이룩하는 길이다.

52) 김광수(1998)외, 전게서, pp.301~308에서 참조하여 재구성.

논술 전체에 대한 평가와 조언

이 글의 개요는 좀 복잡해 보인다. 글을 따라 읽으면서 체크해 보자. 먼저 문제를 제기하면서 자신의 견해를 밝힌다. 다음으로 여성 할당제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동시에 효율성의 관점에서도 여성 할당제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교육을 통해서만 진정한 남녀 평등이 실현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음 단락에서는 능력이 동등한 경우에도 남성을 선호하는 인습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전통적인 인습을 버려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여성에게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을 개혁해서 성차별적인 요소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는 결론을 맺고 있다. 이것을 글의 단락에 따라서 개요를 만들어 보면 분명하게 드러나겠지만, 이 글은 구성에 있어서도 정연하지 못한 점이 있다.

이 학생이 쓴 논술을 갖고 역으로 개요를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다.

(1) 서론 :

- (1-1) 문제제기 : 여성 할당제 논란
- (1-2) 주장을 천명 : 여성 할당제는 부적합

(2) 여성 할당제 비판

- (2-1) 여성 할당제는 평등 원칙에 위배됨
- (2-2) 사회의 효율성을 떨어뜨림
- (2-3) 여성에게 교육 기회를 확대할 필요 → 여성 할당제 없이도 남녀 평등은 실현될 것

(3) 성차별적 인습과 교육 개혁

- (3-1) 성차별 관행과 전통적인 성차별적 인습
 - (3-2) 교육을 통한 의식 개혁 필요
 - (3-3) 여성에게 교육 기회 확대
 - (3-4) 학교교육에서 성차별적 요소를 없애야 함.
- (4) 결론 : 여성 할당제보다는 교육 개혁을

이 개요를 살펴보면 글을 쓴 학생은 여성 할당제를 비판하는 것과 더불어 자신의

대안을 제시하려는 생각이 아주 강한 듯하다. (2-3) 항이 그 점을 보여 준다. 이것은 여성 할당제를 비판하는 단락에 어울리지 않는 점이 있는데, 이 점 때문에 글의 구성이 조금 번잡스러워 보인다. 또, (2-20의 경우에는 여성 할당제가 사회 전체적인 효율성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지적은 있는데, 왜 그런지에 대한 말은 없다. 이 점은 부분적인 논평에서 다시 지적하기로 하자.

서론에서는 문제 제기만 하고 (1-2) 항을 (2-3) 자리에 넣고, (2-3)은 (3)에서 논의되므로 빼는 식으로 고친다면 글의 전개가 조금 더 선명해질 것 같다.

다음은 문장 수준에서의 고쳐 쓰기에 대한 예시이다.

① 최근에 ~ 크게 일고 있다.→ 이것은 문장이 어째서 표시한 것이 아니다. 학생들의 경우에 “여성 할당제에 대해서 논하라.”라는 문제가 주어지면 으레 “여성 할당제가 크게 문제되고 있다.”는 식으로 쓰는 버릇이 있는 것 같다. 심지어는 “고교생의 용돈으로 얼마가 적당한가?” 하고 물어도 “요즈음 고교생들의 용돈이 크게 문제되고 있다.”는 식이다. 학생들의 본의는 아니겠지만 문제가 갖는 의의 내지 영향력을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② 여성 할당제란 ~ 뽑으라는 것이다.→표현이 틀린 곳은 없지만 “의무적으로...뽑으라는 것이다.”라는 식의 표현은 조금 어색한 데가 있는 것 같다. “여성 할당제란 기업체와 공직에서 일정 비율 이상의 여성을 선발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이다.”라는 식으로 고칠 수 있겠다.

③ 그러나 남녀가 평등하다는 것은 ~ 적합한 수단인지 의심스럽다.→이것도 뭔가 어색한 데 어디가 어떻게 어색한지 찾기는 쉽지 않다. 아마도 ‘남녀가 평등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이라고 말해 놓고 ‘남녀 평등에 적합한 수단인지’라고 이어서 말하는 것이 걸리는 것 같다. 앞의 구절에서 “남녀가 평등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그래야 마땅하다는 당위요 원칙이다. 따라서, 이 부분은 “남녀가 평등해야 한다는 원칙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지만, 과연 여성 할당제가 남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인지는 의심스럽다.” 정도로 고치는 것이 좋겠다.

④ 무엇보다도 ~ 고찰할 때.→우선 ‘남녀의 차이를 고찰할 때’가 정확하지 않고 또 어색한 표현이다. ‘남녀의 차이’라는 말은 애매하다. 이 맥락에서는 현재 우리 나

라에서 남녀가 능력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뜻일 것이다. 또, '고찰'이란 단어는 '고려'로 바꾸는 것이 좋다. 따라서, 이 부분은 '무엇보다도 현재 우리 나라에서 남녀의 능력 차이를 고려할 때'라고 고치는 것이 좋겠다.

⑤ 진정한 평등이란 능력에 따르는 평등한 기회를 주는 것에 있다.→표현이 정확하지 못하다. "진정한 평등이란 능력에 따라서 공평한 기회를 주는 것이다." 정도로 고쳐야 할 듯.

이 대목에서 드러나는 논증 한 가지를 검토해 보기로 하자. 이 학생은 "여성 할당제가 평등의 원리에 위배되므로 정당하지 않다."고 논증하고 있다. 간단한 논증이므로 다시 정리하지는 않겠다. 그런데 이 논증이 건전한가? 우선 이 논증의 전제 가 옳은가? 반드시 그렇지 않다. 여성 할당제가 평등의 원리에 위배된다는 것은 성적 이 좀 나빠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합격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 점만을 고려해서 평등의 원리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 단순한 생각일 수 있다. 우선, 지금까지 여성들이 차별받아 왔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그러한 차별을 보상하는 제도가 평등의 원리에 더 맞다. 이런 원리를 흔히 '보상의 원리' 또는 '역차별'이라고 부르는데, 말하자면 여성 할당제는 일종의 역차별 정책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여성 할당제는 그간의 차별을 보상함으로써 남녀 평등을 실현하겠다는 것이므로, 평등의 원리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 평등의 원리에 입각한 사고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이런 정도의 논의를 토대로 이 학생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문제에 대해서 충실하게 이해했다면 이런 정도의 생각은 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런 종류의 반론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에 대해 대답이 될 수 있는 내용을 개선해야 더 깊이 있는 글이 된다.

⑥ 사회 전체적으로도 비효율성이 제고될 것이다.→'제고'라는 말은 주로 바람직한 것의 수준이 높아졌다는 뜻으로 쓰이므로 여기에서는 적절하지 않다. "사회 전체적으로도 생산성을 떨어뜨릴 것이다."라는 정도가 낫겠다.

⑦ 하향식 평준화의 우려가 있는 것이다.→이상한 말이다. '하향식 평준화'란 고등학교 입시를 없애면서 많이 나왔던 말인데, 이런 장면에서 써도 적절한가? 또, 이

말은 불필요하다.

여기서는 왜 여성 할당제가 사회 전체적인 생산성을 떨어뜨리는지에 대한 논거를 덜 필요가 있다. 성적이 상대적으로 더 낮은 여성이 합격할 수 있으므로? 그러나 첫째로 성적의 차이라는 것이 그렇게 정밀하게 능력을 측정하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큰 점수 차이가 아닌 경우에 성적의 차이는 능력의 차이와 별 관계가 없을 수 있다. 또, 시스템의 효율성이란 구성원 개개인의 능력이 다 뛰어나야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의문들에 대해서 뭔가 설득력 있는 대답이 있어야 좋은 글이 된다.

⑧ 그러므로 진정으로 ~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제도적으로는 이미 여성들에게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어쩌면 이 학생은 여성들이 '실질적으로' 동등한 기회를 누리지 못하는 점을 말하고 싶어한 것 같다. 그런 뜻이라면 "그러므로 진정한 남녀 평등을 실현하려면 먼저 여성들이 실질적으로 남성들과 동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써야 할 것이다.

⑨ 그래서 여성들이 남성들과 ~ 무원칙적인 법 없이도 남녀 평등은 실현될 것이다.→우선 '무원칙적'이란 말은 선결 문제 요구의 오류를 범하는 있다. 여성 할당제가 과연 무원칙적인가 아닌가는 이 글이 주요 논점인데, 쉽게 단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여성들이 남성들과 동등한 능력을 갖춘다고 해서 저절로 남녀 평등이 실현되는 않을 것이다. 성차별의 문제는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서 능력을 개발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과 '동등한 능력을 갖춘 경우에도 여성들이 차별당하고 있다'는 두 가지 문제를 다 포함한다. 이 글의 다음 단락에서 이 문제를 논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 이렇게 단정하는 것은 좋지 않다.

⑩ 아직 우리 나라는 ~ 인습을 버려야 한다.→ 여성 문제가 마치 우리 나라의 전통적 인습 탓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서양에서도 전 시대로 올라갈수록 여성 차별은 우리 나라와 마찬가지로 심했고, 남녀 평등이 실천되기 시작한 것은 아주 최근의 일이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여성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 의식'도 못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은 '사실에 관한 지식' 문제, 즉 상식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너무나 상식에서 벗어난 얘기를 하는 것도 논리적인 오류 못

지 않게 큰 잘못이다.

⑪ 이러한 전통적인 인습은 ~ 바꾸어야 한다.→“이러한 전통적인 인습은 하루아침에 고쳐질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교육을 통해서 바꾸어 가야 한다.”는 정도로 고쳐야 좋은 표현이 되겠다.

⑫ 사실 우리 나라는 ~ 성차별적인 점이 많았다.→이런 식으로 뭉뚱그려서 쓰는 것은 문장의 정확성을 해친다. 다음 문장으로 미루어 보건대, 아마도 교육 기회에 있어서도 여성들이 차별을 받았을 뿐 아니라, 교육의 내용도 성차별적인 요소가 많았다는 말인 듯하다.

⑬ 가정은 여학생들에게만 가르쳤고, 기술은 남학생의 과목이었다.→큰 잘못은 아니지만 여기서 ‘가정’과 ‘기술’은 인용부호를 달아서 표시해야 과목의 이름이 된다.

⑭ 그러므로 학교교육을 ~ 배울 수 있게 해야 한다.→“그러므로 학교 교육의 내용에 있어서 성차별적인 요소들을 없애도록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정도로 고쳐야 자연스러운 문장이 될 듯하다.



V. 결론 및 제언

이상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고등학교 교육현장에서 논술 쓰기 실태를 분석하여 기존의 전통적 교수 방법인 결과중심 논술지도 방안은 논술 학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과정중심 논술지도 방안을 강구하고 지도의 실제에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였다.

논술 쓰기를 하나의 문제 해결 과정으로 파악하고 각 과정별로 적절한 전략을 구안함으로써 학습자의 논술 쓰기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특히 쓰기에 대한 선행연구의 다수가 이론 연구 중심이고 실질적인 예시를 보여 주지 않음으로 하여 연구를 위한 연구로 현실성이 미흡한 점을 감안하여 이 연구에서는 구안된 방안의 실질적인 지도 방안에 대한 예들을 제시함으로써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방안이 될 것이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논술 쓰기 과정을 계획하기 내용 생성하기 내용 조직하기 표현하기, 고쳐 쓰기로 나누고 계획하기 과정에서는 문제분석 및 주제 설정 전략을, 내용 생성 과정에는 브레인스토밍, PMI 기법, 즉석 말하기 전략을, 내용 조직하기 과정은 개요 작성 전략을, 표현하기 과정에서는 부분적 얼른 쓰기 전략과 전체적 초고 쓰기 전략을, 고쳐 쓰기 과정에서는 동료의 조언전략과 지도 교사의 조언하기 전략을 마련하였다.

이 연구에서 구안된 과정 중심 논술 방법은 다음과 같은 면에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로 위와 같이 논술 쓰기 과정을 몇 개로 나누고 각 단계마다 적절한 전략을 학습하여 부분적, 순차적으로 학습하게 되면 막연히 총체적으로 논술 쓰기를 행하는 경우보다 단계적으로 전략을 구사하면서 풀어나가기 때문에 논술 쓰기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하나의 논술을 완성시키기가 쉽다.

둘째로 논술 쓰기에서 학습자들이 실제로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내용 생성인

데 사전에 논술 문제를 제시하고 관련자료를 조사하고 브레인스토밍, PMI 기법, 즉석 말하기 등 다양한 기법을 활용함으로써 내용 생성이 보다 쉬워지게 된다.

셋째로 개별학습과 토의학습을 병행함으로써 전적으로 개별적인 논술 학습 때보다 내용이 풍부하고 정교성도 높게 된다.

넷째 학습자들이 논술 쓰기에 대한 부담감을 경감시킴으로써 자기 주도적 논술 학습 태도의 긍정적 변화가 기대된다.

다섯째, 과정 중심의 접근과 문제 해결 전략의 활용, 모둠원의 협력 등으로 인하여 숙련자는 물론 특히 초보자도 유용한 논술 학습 방법이 될 것이다.

논술 능력을 향상시키는 일은 곧 교육의 본질중의 하나인 고등정신 능력을 신장시키는 일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대학입시를 위한 현실적 수단으로서의 논술지도도 중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교육의 본질을 추구한다는 면에서 논술지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따라서 논술 지도는 국어교과나 윤리, 사회 교과 등 특정 교과 담당 교사의 몫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모든 교사가 논술 지도 교사라는 인식으로 전환 되어야 한다. 수업상황을 포함한 실제 학생 지도 상황에도 늘 문제점을 발견하고 발견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상황을 의도적으로 마련함으로써 논술을 위한 환경이 긍정적으로 마련 되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체계적이고 의도적인 독서지도도 병행되어야 한다.

끝으로 이 논문은 연구의 제한점에서 밝혔듯이 구안된 논술 지도 방법을 현장에 적용시켜 그 효용성을 검증해 보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앞으로 구안된 지도 방법을 현장에 끊임없이 적용하면서 검토, 수정, 보완하여 보다 실용성이 높은 지도 방안으로 개발되어 나가야 하겠다.

〈참고문헌〉

1. 저서

- EBS 교육방송(1994), 「TV 고교 가정학습 논술」, 교학사.
- 교육부(1992),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해석」, 교육부 고시 제 1992-19호.
- 교육주보사(1997), 「논술 지도의 실제」, 상지사.
- 김광수 외(1998), 「논리와 논술」, 한국방송대 출판부.
- 김광수(1997), 「증명과 설명」, 철학과 현실사.
- 김광수(1997), 「탐구의 논리」, 철학과 현실사.
- 김상태 외(1996), 「대입 논술의 이론과 실제」, 도서출판 한벗.
- 김영채(1998), 「사고력 이론 개발과 수업」, 교육과학사.
- 김은전 외(1996), 고등학교 「작문」 교과서, 교학사.
- 김이종(1992), 「국어과 교육 이론과 실제」, 교육과학사.
- 노명완 외(1997), 「국어과 교육론」, 갑을 출판사.
- 박영목 외(1996), 「국어과 교수학습 방법탐구」, 교학사.
- 박영목(1996), 고등학교 「작문」 교과서, 한샘출판사.
- 박원희(1995), 「교과교재 연구 및 지도법」, 경성대 출판부.
- 변홍규(1987), 「능률적 토의 수업의 기법」, 교육과학사.
- 신헌재·이재승 편저(1997), 「학습자 중심의 국어교육」, 박이정.
- 엄영재 외(1995), 「논술특강」 1-6권,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 올바른 논술교육을 위한 연구 모임, 「논술 서론만 쓰면 다 쓴다」, (주)교연미디어.
- 원진숙(1995), 「논술교육론」, 박이정.
- 이대규(1998), 「독서와 작문의 이론」, 신구문화사.
- 이상태(1983), 「국어교육의 기본 개념」, 한신문화사.
- 이용남 외(1986), 「문장의 원리와 작문의 실제」, 동성사.
- 이익섭(1989), 고등학교 「작문」 교사용지도서, 학연사.
- 임규총(1996), 「국어교육의 이론과 실제」, 한신문화사.
- 제주대학교 작문교재 편찬위원회(1997), 「글쓰기의 방법과 실제」, 제주대학교 출판부.

- 제주사대부고(1998), 「논술·면접 지도자료」, 성심인쇄사.
- 조성민·정성심(1999), 「토론이 된다 논술이 된다」 1~3권, 사계절출판사.
- 중앙교육진흥연구소(2000), 「3년 간 주요대 논술문제」, 중앙교육진흥연구소.
- 천한신 외(1995), 「디딤돌 대입 논술」, 디딤돌.
- 최창렬(1994), 「국어수업연구」, 일지사.
- 최현섭 외(1995), 「국어 교육학의 이론과 탐색」, 일지사.
- 한국방송대 평생교육원(1998), 「논리·논술교육의 이론과 실제」, 한국방송대 출판부
- 한국어문 교육 연구소(1995), 「문장의 이론과 논문작성」, 한국문화사.
- 한철우·김명순·박영민(2001),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을 위한 문학 중심 독서 지도」, 대한교과서(주).

2. 논문

- 김경주(1998), “과제분석 전략을 이용한 쓰기 능력 신장 방안 연구.”,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대행(1994), “논술 지도 교육의 발전적 방향.”, 『논술 지도의 실제』 94-3, 서울특별시 교육연구원.
- 김도남(1997), “문제해결중심의 작문 지도 방법 연구.”, 한국교원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선영(1997), “고등학교 논술교육과 지도 방안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원석(1997), “질문 생성전략이 논술과제 수행 능력에 미치는 효과.”,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엄훈(1996), “전략중심의 쓰기 교수·학습방법 연구.”,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1994), “작문 교육의 이론적 기초와 방법론 연구.”, 고려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육우균(1996), “논술문 쓰기 지도 방법 연구.”, 고려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세천(1997), “모둠 토론을 통한 논술문 지도 연구.”, 전남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재기(1997), “소집단 협동적 작문 활동에 대한 고찰”, 한국교원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재승(1998), “과정중심 쓰기 교육의 구현 방안”, 『청람어문학』 20, 청원: 청람어문학회

최윤길(1999), “토의중심 논술지도방안 연구”, 한국교원대 석사학위 논문.

3. 외국 서적

린다플라워(1993), 「글쓰기의 문제 해결 전략(Problem-solving strategies for writing)」, 원진숙·황정연 역(1998), 동문선.

미자노& 아레톤(1986), 「사고전략(Taetics for thinking: Tearcher's manual)」, 김홍원 역, 원미사.

바바라 민토(1987), 「논리적으로 글쓰기, 논리적으로 생각하기(The PYramid Principie)」, 민혜진 역(1996), 토년출판사.

스텝&게일(1995), 「구성주의와 교육(Constructivism in education)」, 조연주 외 역(1997), 학지사.

존 윌슨(1985), 「논리적으로 생각하기(Thinking with concepts)」, 윤희원 역(1993), 책과 사람들.

패트릭·하드웰(1982), 「글을 어떻게 쓸 것인가(Open to language)」, 이을환 외 역(1985), 도서출판 경문사.

<Abstract>

A Study on Process-centered Teaching Method of Persuasive Essay

Kang Tae-ill

Major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Moon Sung-sook***

Since the midst of 1990s, the exam of persuasive essay has been carried in the entrance exam. So,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persuasive essay to prepare for the entrance exam of university. Above all, communication ability, logicality, critical ability, communicative decision ability are improved by the persuasive essay, and the persuasive essay is an effective learning activity in improving a positive and desirable emotion. This is why the teaching of persuasive essay is needed in High School.

In spite of this importance, the teaching of persuasive essay tends to be lightly thought in High School, because it has the character of extra subject and the main body of teaching is not well-defined. Also, the difficulties of person guidance and the absence of applicable teaching methods prevent us from activating a teaching of persuasive essay.

The teaching methods of persuasive essay which can be helped in High School are demanded gradually. According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ise an effective teaching method of process-centered persuasive essay instead of a teaching method of result-centered persuasive essay which was traditional method. This study places great importance on a teaching method of process-centered persuasive essay. In this study, the main point is "What and

how will we learn?"

If the persuasive essay is regarded as a process of task-solving, its task would be able to solve when the strategy of task-solving is learned and applied to new tasks. Further, the tasks could be able to settle accurately and promptly. In this study, quoting Flower's "division into five parts", the processes of persuasive essay are divided into the followings: planing, generating, organizing, expressing and rewriting the ideas. And The strategies of task-solving by each process are summarized as follows:

1) In the process of planing, the strategies of problem-analysis and topic-settlement are suggested. 2) In the process of generating, the strategies of brainstorming, PMI-techniques, and impromptu speaking are suggested. 3) In organizing, the strategies of drawing up outline are suggested. 4) In expressing, the strategies of a quick-writing by part and a whole manuscript-writing are suggested 5) In the process of rewriting, the strategies of advice of colleagues and teachers are suggested.

The process-centered persuasive essay teaching methods are expected to have the effect of the follows:

First, If we approach writing a persuasive essay partly and methodically after learning the strategies of the processes mentioned above, persuasive essay-writing would be able to be solved with more ease. Second, as a matter of fact, generating the contents of the persuasive essay is the most difficult for learners. However, It would be more easy if we analyze the topics of the persuasive essay, examine the concerned materials, and use some skills such as brainstorming, PMI-technique and impromptu speaking. Third, As we use an individual learning and a discussion learning simultaneously, the contents would be more abundant and elaborate, unlike depending on only an individual learning wholly. Forth, As Learners have little burden of writing persuasive essay, a positive change, that is, self-centered learning activity would be expected. Fifth, As learners use the strategies of problem-solving, do the process-centered approach, and help each other in the course of writing a persuasive essay, this learning and teaching method would be useful for beginners as well as skilled writers.

Finally, a drastic switch in thought is necessary for effective teaching of persuasive essay. So to speak, all teachers have to look at the responsibility of teaching of persuasive essay in a new light. Teaching of persuasive essay should

be the responsibility of all teachers, not special teacher. All teachers should try to discover the problems and solve them for learners. Also, a systematic and deliberate guidance in reading for learners should be done at the same time.

